

박사학위논문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최미경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창원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oting Behavior
in Korea

- The Case of the 19th Assembly Election in Seoul -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최미경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창원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oting Behavior
in Korea

- The Case of the 19th Assembly Election in Seoul -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최미경

최미경의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책학전공

최 미 경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서울특별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야권연대’ 혹은 ‘연합공천’의 실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째, 투표 참여의 경우, 유권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 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바빠서(37.8%)가 가장 많았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32.8%),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야권연대’를 통한 ‘야권후보 단일화’의 유권자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민주통합당에는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반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통합진보당에는 투표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권연대에 의한 후보 단일화’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구 후보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선택의 경우, 지역구 후보 정당을 선택할 때 유권자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유

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선호도는 여당에 대한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은 여당에 대한 투표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와 비교해 볼 때,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정책만족도는 지역구와 달리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명박 정부 만족도 또한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지역구 후보의 정당과 비례대표의 정당이 일치하는지 투표 여부에는 정치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으며, 정당 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일치하였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 통합진보당을 선호하는 유권자일수록 비 일관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합하면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와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관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정당 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 정치적 이슈 유권자 투표 행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 2 장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제 1 절 투표 행태의 개념	6
제 2 절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이론	7
1. 합리적 투표 행태와 비합리적인 투표 행태	8
2. 사회학적 이론과 투표 행태	9
3. 사회적 균열과 투표 행태	11
4.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투표 행태	13
5. 합리적 선택이론과 투표 행태	16
6. 인지심리학적 이론과 투표 행태	18
7. 신제도주의 이론과 투표 행태	19
8. 이슈 투표와 투표 행태	20
제 3 절 유권자의 투표 행태 분석모형	20
1. Campbell의 모형	21
2. Newman & Sheth의 모형	21
3. Lindon의 모형	23
4. Raid의 모형	24
제 4 절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24
1. 제13대-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과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24
2. 한국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 행태의 특징	33

제 3 장 연구 설계	39
제 1 절 연구모형	39
제 2 절 변수간의 관계 및 가설 설정	40
1. 정당 선호도와 투표 행태	40
2. 정당 정책 만족도와 투표 행태	41
3. 이명박 정부 만족도와 투표 행태	42
4. 정치적 이슈와 투표 행태	43
제 3 절 변수의 구성과 측정	45
1. 종속변수	46
2. 독립변수	46
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8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50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50
제 2 절 투표 행태: 지역구 후보 투표 정당	70
제 3 절 투표 행태: 비례대표 투표 정당	74
제 4 절 투표 행태: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 불일치 ..	78
제 5 절 가설의 검증 결과	80
제 5 장 결론	82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82
제 2 절 정책적 함의	86
제 3 절 연구의 한계	88

【참고문헌】	89
【부 록】	
설문지	96
ABSTRACT	104

【 표 목 차 】

〈표 2-1〉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주요 변수	27
〈표 2-2〉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특징	33
〈표 3-1〉 가설의 요약	44
〈표 3-2〉 변수의 구성과 측정	45
〈표 3-3〉 응답자 수 및 응답률	49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표 4-2〉 정당 선호도	52
〈표 4-3〉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 참여 여부	53
〈표 4-4〉 정당 정책 만족도	54
〈표 4-5〉 정당 정책 만족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54
〈표 4-6〉 정당 정책 만족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55
〈표 4-7〉 이명박 정부 정책 만족도	56
〈표 4-8〉 이명박 정부 정책 만족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행태	57
〈표 4-9〉 이명박 정부 정책 만족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행태	58
〈표 4-10〉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요도	59
〈표 4-11〉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요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60
〈표 4-12〉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요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61
〈표 4-13〉 기술통계량 1(투표 미참여자 포함)	62
〈표 4-14〉 기술통계량 2(투표 미참여자 제외)	63
〈표 4-15〉 분석 모형(종속변수: 투표 참여여부, N=545)	65
〈표 4-16〉 정치적 이슈의 분석 모형 (종속변수: 투표 참여여부, N=549) ·	66
〈표 4-17〉 정치적 이슈의 분석 모형 (종속변수: 투표 참여여부, N=549) ·	68
〈표 4-18〉 분석 모형 (종속변수: 지역구 여당투표=1, N=456)	71
〈표 4-19〉 정치적 이슈의 분석 모형 (종속변수: 지역구 여당투표=1, N=456)	72
〈표 4-20〉 분석 모형(종속변수: 비례대표 여당투표=1, N=452)	75
〈표 4-21〉 정치적 이슈의 분석 모형 (종속변수: 비례대표 여당투표=1, N=456) ·	76

〈표 4-22〉 분석 모형 (종속변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 불일치 여부, N=453)	78
---	----

【그림 목 차】

〈그림 2-1〉 사회적 균열 구조와 정당 체제의 변화	12
〈그림 2-2〉 Michigan학파의 정당 일체감 모형	14
〈그림 2-3〉 한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	16
〈그림 2-4〉 Campbell의 모형	21
〈그림 2-5〉 Newman & Sheth의 모형	21
〈그림 2-6〉 Lindon의 모형	23
〈그림 2-7〉 Raid의 모형	24
〈그림 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 수 현황	31
〈그림 2-9〉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35
〈그림 3-1〉 분석의 틀	3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었으며,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모든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얻으며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주의 인사를 고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5월부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정부 출범이후 6개월 만에 지지율이 20%아래로 떨어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제시하였던 보수적인 공약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포기하거나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치발전과 정치문화의 역사는 ‘위기와 개혁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후발 산업화인 한국은 시장진입의 위기, 산업구조의 위기, 구조조정의 위기, 그리고 정책실패의 위기 등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임기 8개월을 남겨두고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가 회고적인 투표를 하는지 혹은 전망적인 투표를 하는지를 분석하고, 그들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정부조직이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¹⁾

일반적으로 선진화된 국가의 선거는 정책문제 혹은 정책이슈 중심인 반면에, 한국은 인물, 정당, 이념, 지역, 당의 정강 등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선진화된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였으며,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현직의 보유가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현직효과 긍정론’³⁾과 그렇지 않다는 ‘현직효과 부정론’⁴⁾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정치적 충원, 국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 정부의 권력의 정당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 그리고 정치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는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볼 때,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어떠한 후보자

-
- 1) 엘리트의 정치적 충원이란 사회구성원의 일부를 선택하여 이들에게 정치적 인식 능력과 가치관 등을 제공하고 또 적절한 기술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면서 특정한 정치적 역할을 맡기는 과정, 즉 사회구성원이 정치의 장(場) 또는 전문화된 역할로 유입되는 과정을 말한다. Gabriel A. Almond, A Functional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 A. Almond & J. S. Coleman (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2) 안병만·김인철은 일반적으로 정치가 발전할수록 정견투표가 정당투표보다 중요해지고 인물 투표의 경향은 최소화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설명이 맞지 않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당 중심인물의 출신지역이나 연고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안병만·김인철, 「유권자들의 정치정향 투표 행태: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2).
 - 3) 박찬욱,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 황아란,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2). 황아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 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윤종빈,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 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4). 이갑윤-이현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 4) 문용직,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7. 이남영, 「한국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1985년-1988년 양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비교분석」, 『의정연구』, 54(9). 김광웅-이갑윤(편), 「정당 선거 여론」, 김도중·김형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들을 선택하는가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을 집합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이갑윤(2011)의 『한국인의 투표 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갑윤(2011)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시도하였고, 한국인의 투표 행태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갑윤(2011)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갑윤(2011)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같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다음 대선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한 지역투표 경향이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이갑윤(2011)의 지적과는 달리,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등의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투표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갑윤(2011)의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나치게 강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영향으로 인해 합리적인 투표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의 성향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서울특별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갑윤(2011)의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권에 대한 평가나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정한 이슈가 지닌 강한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슈와 이명박 정부 시기 업적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야권연대 혹은 '연합공천'의 실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물을 선택하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갑운(2011)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은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행태를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인 결과로서 투표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들은 인물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각 정당별로 전국구 및 비례대표 득표율에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갑운(2011)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와 인물에 대한 투표가 분리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과거와 비교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범위를 좁혀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정당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넷째, 국가적인 경제지표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섯째, 선거당시 쟁점이 되었던 이슈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본 논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 결과를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유권자 투표 행태의 결과변수 또는 정치문화 및 정치발전의 선행변수로서의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론화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5개 자치구의 선거인 비율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의 이유는 정권교체와 위기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지역주의 성향에 의해 투표 결과가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보다는 투표 당시의 변수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 간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내 외 단행본 서적, 학술논문, 각종 통계자료들을 이용하고, 국회도서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간행물 및 참고자료, 국정감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선거인 비율을 기준으로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여 설문대상을 결정하였으며, 무작위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셋째,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고 가설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제 2 장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투표 행태의 개념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귀족제, 군주제, 독재체제에 대비되는 뜻이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으며, 이는 ‘직접민주주의’이다. 반면, 국민 개개인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이다.

선거란 사전적 의미로는 다수인의 단체 또는 일정한 조직에서 그 구성원 중의 유자격자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간부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위로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가 바로 선거인 것이다.

한편, 투표 행태란 유권자의 심리적 차원에서 취급하는 투표 환경심리와 그 심리적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 투표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것인가 혹은 안할 것인가, 둘째, 어떠한 준거를 가지고 투표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투표 행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실정치에서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 중에서 선거와 관련한 참여행위가 바로 투표 행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서상국, 2009).

투표 행태란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하여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택하고, 투표를 결정하여 실행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선거법 47조 2항에 의하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와 더불어 또 다른 행위자로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

태는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요인이 된다.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는 그 시대의 국가나 국민들이 지니는 정치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태도, 투표 행태 등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 2 절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이론

투표 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권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갖는 태도를 의미하는 투표 참여에 관한 일반이론이다. 다음으로, 투표를 한다면 ‘특정후보자를 결정할 때 어떠한 준거를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투표 행태에 관한 이론적 시각은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 연구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리적 시각의 접근방법은 유권자들이 이성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론이나, 비합리적 시각의 접근방법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특성이나 유권자의 감정적 측면을 근거로 하여 투표 행태를 보이는 이론이다(송명학, 2003).

합리적 투표 행태는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투표행위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이론으로, 유권자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부(富)나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강원택, 2002).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은 인간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Downs(1957)⁵⁾의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인간관에 착안

5) Downs(1957)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그들이 어떠한 정당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가이며,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결정을 위해서 정당의 과거 실적이나 미래에 대한 공약을 평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Downs는 실용적인 수혜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정당간의 차별성을 계산하면서 자신에게 최대의 수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측면에서 전망투표를 전형적인 합리적 투표라고 하였다.

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투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정권을 맡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어느 정도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느냐는 것이다. 즉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의 차이를 계산하여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한 연구는 정책투표만이 합리적인 투표행위라고 주장하며,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한다(조기숙, 1996).

1. 합리적 투표 행태와 비합리적 투표 행태

1) 합리적 투표 행태

투표 행태에 관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Downs(1957)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의미는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투표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 투표 행태에서 개별적 유권자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부(富)나 주관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박이석, 2005).

그러나 경제학적 이론을 인용한 논리적 설득에 비해 경험적 연구로서의 증거확보가 미비하고 예측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이유를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때때로 이론적 논의가 경험적 검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강원택, 2002).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적절한 일꾼을 뽑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교환해야 하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호의를 얻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후보자를 알리는 인지수단은 무엇이고, 유권자는 어떠한 인지경로를 통

해서 후보자를 파악하며, 그리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고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의 맥락이고, 후자는 언론매체, 정당, 선거운동 등을 통한 방법이다.

2) 비합리적 투표 행태

비합리적 투표 행태에서는 특정 유권자가 특정한 사회적 속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표 행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유권자는 사회적 소속감이나 정당에 대한 일체감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에 비합리적·감정적 행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서상국, 2009).

비합리적 투표 행태이론으로 크게 사회적 판단이론과 후보자 특성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판단이론은 선거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선 자신의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싫어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먼 것으로 왜곡하여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Sherif & Hovland, 1961). 둘째, 후보자 특성이론은 유권자들이 이슈에 대한 평가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매력이나 특성에 근거하여 투표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가 제시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동조한다는 것이다.

2. 사회학적 이론과 투표 행태

Lazarsfeld(1948) 등은 패널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선거운동과는 관계없이 계층, 인종, 종교 등에 따라 특정 정당과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사회학적 투표 모형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즉, 유권자의 후보자결정 행위는 그가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토대로 유권자의 성장배경, 부모의 성향, 유권자의 종교, 신념, 교육,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주요한

설명변수들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학적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사회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하는 유권자들은 투표결정에 있어서 유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학적으로 동일하게 분류된 집단구성원들과 그들의 투표 행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학적 변수들을 찾아낸다는 것이다(황근, 1993).

따라서 이 이론은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로서 실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인종, 출신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유권자는 인종, 출신지역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이미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Columbia학파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나 특정 사건·이슈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시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권자에게 일정기간에 같은 질문을 반복해 유권자의 변화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학적 이론은 우리나라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근대화 이론이나 지역주의 이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윤천주(1961)의 ‘농민층의 여당 투표성향과 도시민의 야당 투표성향’, 김광웅(1987)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 분석’, 김만흠(1991)과 정진민(1993)의 ‘연령에 의한 투표 행태 연구’, 박상훈(2000)의 ‘출신지역에 따른 투표 행태의 연구’를 들 수 있다(박이석, 2005).

그러나 이 이론은 개인의 투표결정이 소속된 집단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어 일정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중 단기간의 투표 행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거주지, 종교 등은 단시일 내에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변화가 심한 투표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이 어떻게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고, 유권자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사회가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의 결정요인을 개인이 아닌 인종, 집단 등의 외부적 요인

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유권자의 소속집단을 결정하는 계급, 인종 등의 사회적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안정적 유권자 대신에 부동층 유권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적실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3. 사회적 균열과 투표 행태

사회적 균열은 특정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가치 및 신념, 계급, 문화, 이해관계 등의 구분이 사회적 균열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체계의 정렬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회적 균열 중 어떤 요소는 정치적 균열로 나타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균열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체제 - 반체제 균열에서부터 체제 내의 정치적 대립 및 경쟁구도 등 여러 수준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균열이란 특성 기준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균열은 계급, 문화, 신념 등 여러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으나, 모든 사회적 구분이 같등으로 전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잠재적 집단갈등의 요소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적 균열로 볼 수 있다(김만흠, 1995).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관련하여 사회적 균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사회구조적 접근법이다. 유권자의 '문화적 가치나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균열 구조와 유권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Norris, 2004). 이 접근법은 사회구조적 변수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 행태나 정당체제의 편제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되지만, 전략적 행위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나 정당체제를 원활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동운, 2009). 둘째, 정치동원론적 접근법이다. 정당과 정치엘리트가 자신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으로 동원한다고 보는 것이다(McCarthy & Zald, 1997). 즉,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과 정당의 전략적 자원 동원 및 선거운동을 결합하여 정당의 득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 사회적 균열 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다수당	
		동일	균열
균열 구조	동일	유지	일탈
	균열	전환	재편

자료: Maisel(2002: 50)

위의 〈그림 2-1〉과 같이, 선거과정을 통한 사회적 균열 구조와 정당체제 변화는 선거과정에서 다수당의 승리 또는 집권 여부와 사회적 균열의 여부를 통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다수당이 선거에 승리해 집권당이 된다면 정당체제는 그대로 ‘유지(maintenance)’된다. 둘째, 선거 과정을 통해 다수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은 동일하지만 다수당이 선거에 실패해 소수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이것은 정당체제의 ‘재편(realignment)’을 초래한다(Campbell et al., 1960). 셋째,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했으나 과거 다수당이 선거에 승리해 그래도 집권당이 될 경우, 이는 정당체제의 ‘전환(conversion)’을 의미한다(Pomper, 1972).

한국의 사회적 균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적으로 내재되었던 ‘민주대 반민주’의 사회적 균열 구조가 해체되고,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투표 행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영남과 호남의 ‘지역 균열’에 입각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감정과 갈등 구조가 반영된 비합리적 투표 행태로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정치세력이 지역적 균열을 선거 전략

으로 동원함으로써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확산시킨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김만흠, 1995).

최근에는 지역균열과 더불어 세대균열, 이념균열, 경제균열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균열로 등장하고 있다. 김형준(2006), 이갑윤·이현우(2008) 등은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지지도 경로분석을 통해 세대 변수가 지역주의 변수와 더불어 선거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념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영향력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인섭(2003)은 새로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균열과 중첩되어 확산되고 있는 탈물질적 가치의 정치적 쟁점이 이념적 요인과 결합하여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4.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투표 행태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Michigan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Survey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Campbell 등에 의해 연구되어 “Michigan학파”라고 부른다. 이 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 개인적 신념과 정보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으로서 후보자와 선거쟁점과 같은 단기적 쟁점의 변화가 유권자의 개별 심리적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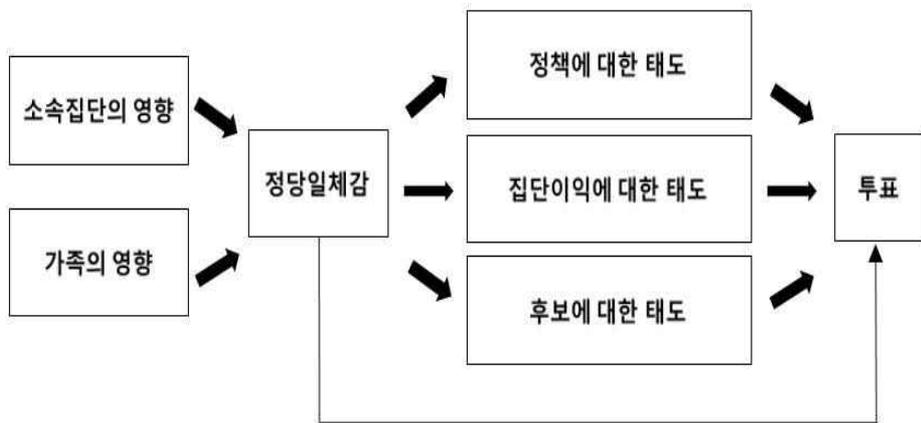
Michigan 학파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Columbia학파들이 주장하는 사회학적 이론으로는 유권자 표심의 단기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당 일체감과 같은 것이 왜 유권자들의 투표에 미치는가?”가 주된 연구 질문이었다.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일체감이란 특정한 유형의 당파적 태도로서,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일체감은 선거의 안정성과 정당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ichigan학파들은 Columbia학파들의 주장과 다르게 소속된 사회집단의 특성이 투표선택을 즉각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심리 성

향에 의해 투표선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당 일체감이 강한 사람은 지지하는 정당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당 일체감이 약한 사람의 투표 행태가 선거결과의 유동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조기숙, 1996: 전재섭, 2009).

이처럼 Michigan학파가 주장하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성향인 정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유권자의 심리적 귀속감으로 해석되었으며, 장기적 정당일체감을 투표 행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정할 뿐 아니라 투표 결정을 위한 단기적 태도, 즉 후보나 정책쟁점, 집단이익 등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Michigan학파의 정당일체감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Michigan학파의 정당일체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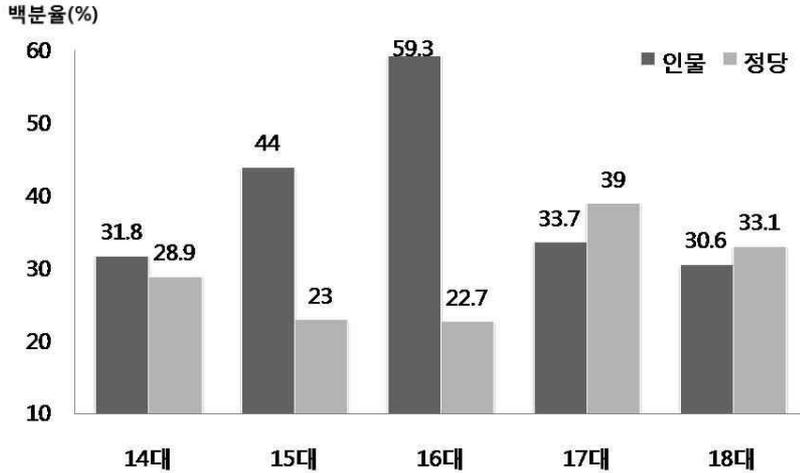
자료: Harrop & Miller(1987: 132)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사회학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사회구조 내에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 차원을 경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갖는 사회적 합의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당일체감을 통한 방법은 충분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서 정당일체감에 대한 연구는 여야 성향과 관련하여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박찬욱(1993)은 특정 정당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유권자 층에 널리 확산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당파적 태도가 여야 성향이기에 때문에 한국적 의미의 정당일체감은 여야 성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출(2001)은 정당일체감을 심리적 귀속감이 아닌 일관성을 가진 정당에 대한 평가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명칭 변경이 잦고 이합집산이 빈번한 한국 정당의 상황에서도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그림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유권자 투표 결정 요인이 정당 요인보다 인물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이 이슈가 되어 치러진 제17대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정당 요인이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투표 결정에 정당 요인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한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투표 결정요인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www.ksdc.re.kr)에서 재구성

5. 합리적 선택 이론과 투표 행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은 인간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인간관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투표행위에 적용하는 이론으로서 유권자가 합리적 행위자로서 선택하는 것을 가정한다. Downs(1957)에 의하면, 유권자는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계산을 통하여 자신의 기대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투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 개인은 합리적 무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⁶⁾

6) 개인의 투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Downs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이전가능비용(transferable costs)은 유권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획득비용(procurement cost): 자료를 수집, 선택, 전달하는 비용, ② 분석비용(analysis costs): 자료를 사실적으로 분석하는 비용, ③ 평가비용(evaluative costs): 자료와 사실적 분석을 특정한 목표에 관련시키는 비용 (2) 이전불능비용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명제 속에서 ‘인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선택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투표 행태에 적용하여 유권자들은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거나 지지할 정당을 결정할 경우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론이라고도 한다(Downs(1957)).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기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의 합리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Downs(1957)의 ‘기대효용 모형(expected utility model)’에서 시작되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 할 때 “합리적”의 의미는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투표행위 선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투표선택에 있어서의 합리성도 경제학적 접근에서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경제학적 합리성은 협의적 의미로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효율성은 수단의 비용과 목표가 성취되는 정도 간에 가장 좋은 비율을 지닌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시각은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회고적·전망적 투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란 현직자의 재직 시에 수행했던 업적이나 발생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란 과거의 정책 이행 결과에 기반을 두고 선거 시 제시되는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 자신과 정책적 입장이 유사시 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Fiorina(1981)에 의하면 합리적 유권자는 정당 정책에 대한 기대효용을 계산할 때, 과거의 정당 업적 평가로 정당일체감에 비추어 정당을 선택하고, 전망적 투표처럼 정당이 제시하는 정당 정책 공약 평가에도 중요시 한다. Fiorina의 회고적·전망적 투표자는 회고적 투표자와 다르게 현직자 임기동안 업적뿐만 아니라 현직자 정당이 과거에 행한 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합리적 유권자가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한 쟁점

(nontransferable costs)은 유권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투표하러 가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각각의 정당에 대한 순평가를 비교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투표결정을 하는 비용은 유권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전불능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Downs, 1957).

투표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쟁점투표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정당이나 후보자를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가 실증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김재전, 2008).

6. 인지심리학적 이론과 투표 행태

이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지만 실체적이고 총체적인 합리적 이론이 아니라 절차적 한계가 있는 제한된 합리적 이론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개인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속성 등에 의해 인지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표선택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고 전제하고 소속감이나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감정적 투표 행태이론이라 한다면, 인지심리학적 이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이론은 경영학의 소비자선택이론을 투표 행태이론에 도입한 것이다. 인지이론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황근, 1993). 즉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의 캠페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지하거나 재해석하지 않으면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지심리학적 이론은 유권자가 인지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투표 행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심리학적 이론이 미국 정치학계 연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황근(1993)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선거 캠페인에 노출된 것이 개인의 스키마와 그 스키마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가 지녔던 가장 중요한 스키마는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으로, 대중매체는 캠페인 기간에 후보자의 속성에 대한 스키마를 자극함으로써 신문보도와 텔레비전 토론은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에 대한 도식을 극단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매체는 설득의 매체이기 보다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 신제도주의 이론과 투표 행태

신제도주의 이론은 각국의 투표방식, 선거구제, 의석 배분 방식 등 선거제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례직 선거제도와 다수결 선거제도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Farrell, 1977). 비례직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 정당의 결과로 반영하는 것인 반면에 다수결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가 정치적 결과로 정확히 반영되지는 않지만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와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유권자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와 관련된 제도는 유권자 투표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Duverger(1954)는 투표구조, 선거구 크기, 의석 배분 방식 등에 따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제도의 효과를 정치적 효과(mechanical effect)라고 하였다.

또한, 제도나 맥락 등 외부적 요인의 일방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선택의 집합(political choice sets)이 달라짐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제시하는 행위자로 정당의 이미지와 이념적 차이, 경쟁구도,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신호 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의 변수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Druckman(2004)는 구조로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으로 제도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 간접적, 상호작용 효과로 세분화하여 고찰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다면적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Anderson(2006)은 국가마다 제도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유권자가 집권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심판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성의 투명성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산, 정당경쟁구도의 형태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슈 투표와 투표 행태

최준영(2009)은 이슈 투표란,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에 입각해 투표하는 것을 가리켜 이슈 투표라고 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 요소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Campbell(1960)에 의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이슈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이슈 투표를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Downs(1957)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정책 공약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합리성에서 찾고 있다.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이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면 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실제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슈 투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Key(1966)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확연한 차이를 보일 때 이슈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Carmines & Stimson(1980)은 정책 이슈를 쉬운 이슈(easy issue)와 어려운 이슈(hard issue)로 구분하고 쉬운 이슈에 유권자가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쉬운 이슈란 정책의 수단보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의 이슈를 의미하고, 어려운 이슈란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정치적 이슈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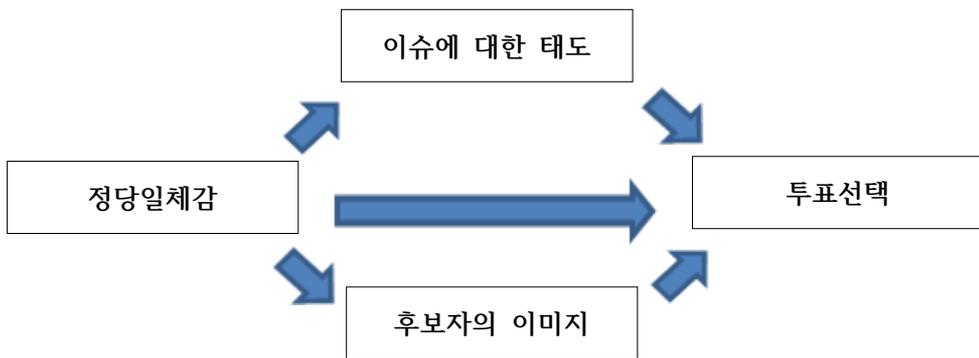
제 3 절 유권자의 투표 행태 분석모형

지금까지 살펴 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Campbell(1960), Newman & Sheth(1985), Lindon, 그리고 Raid 모형을 검토하여 한국인의 투표 행태 결정요인을 위한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Campbell의 모형

Campbell(1960)등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정당일체감, 후보자,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당일체감을 들고 있으며, 이는 투표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나 쟁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4〉 Campbell의 모형



자료 : Campbell(196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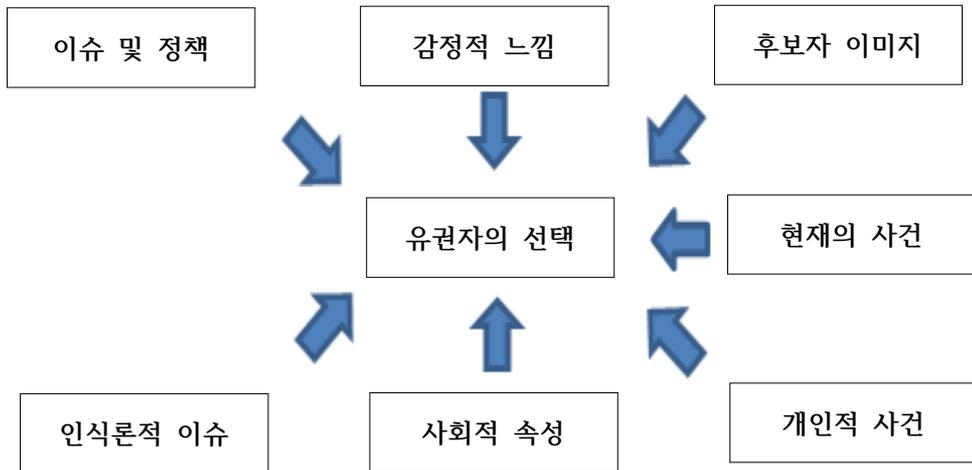
그러나 고영직(1994)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campbell의 모형은 구성변수의 개념화 및 측정의 문제가 있으며, 각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와 유권자들의 태도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모형 자체가 단순하여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개인과 사회적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2. Newman과 Sheth의 모형

Newman & Sheth의 모형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슈 및 정책, 감정적 느낌, 후보자의 이미지, 현재의 사건, 개인적 사건, 사

회적 속성, 인식론적 이슈 등을 들고 있다.

〈그림 2-5〉 Newman & Sheth의 모형



자료 : Newman & Sheth(1985: 178-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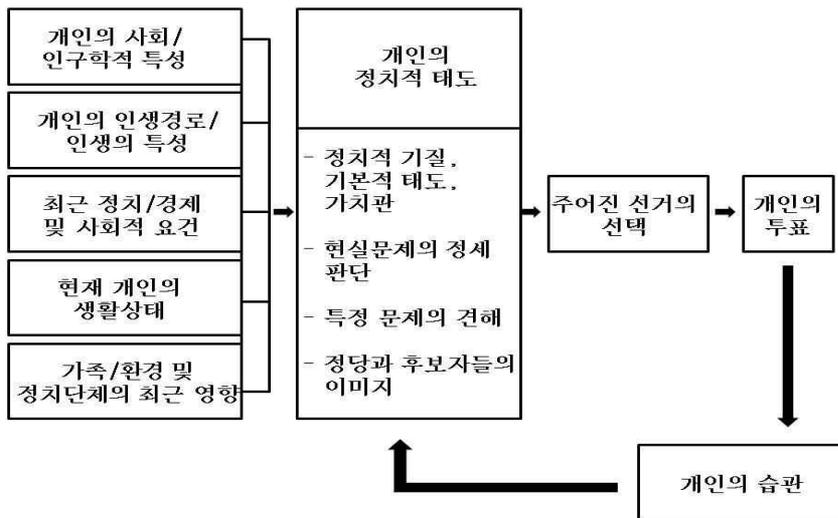
Newman & Sheth(1985)은 먼저, 이슈와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리더십에 관련된 이슈와 정책을 말한다. 이는 각각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사회적 속성은 유권자가 속한 인구통계학적인 속성(나이,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속성(소득, 직업), 문화적·도덕적(인종, 생활방식), 또는 정치·이데올로기적인 부분 등과 같은 부분들과 후보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셋째, 감정적 느낌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희망 사항, 책임감, 애국심 등을 말한다. 넷째, 후보자 이미지는 후보자의 특징을 통해 나타나는 두드러진 개인적 특징을 말한다. 다섯째, 현재의 사건이란 유권자가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을만한 국내외적인 이슈를 말한다. 여섯째, 개인적인 사건이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를 말한다. 끝으로, 인식론적 이슈란 후보자가 일으킨 궁금증, 지식에 대한 만족감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Newman & Sheth(1985)를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적용한 사례는 김형재(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형재(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7가지의 서로 다른 인지 영역들이 확인되었지만, 실제 선거에 있어서는 서로 중복되어 4-5개의 영역만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3. Lindon의 모형

Lindon의 모형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 분석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 평가 할 수 있다(이상울, 1990).

〈그림 2-6〉 Lindon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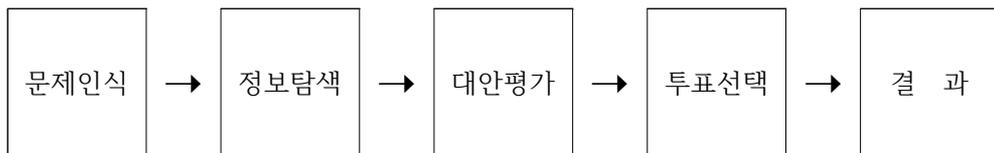
자료 : 이상울(1990: 85)

Lindon에 따르면 특정 유권자의 선택은 그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그에게 주어진 실제 투표선택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정치적 태도는 유권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유권자의 인생, 최근 정치·경제·사회적 요건, 개인의 상태, 가족·환경 및 정치단체에게 받은 영향 등에 의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정치적 태도는 또다시 주어진 선거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4. Raid의 모형

Raid(1988)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과정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는 선거일이 공표되면 투표를 할 것인지를 여부, 사회적 속성 또는 정책이슈,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정보의 탐색단계에서는 인식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셋째, 대안의 평가단계는 유권자들이 탐색한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 또는 정당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넷째, 투표의 선택단계는 유권자들이 대안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두고 특정후보자를 결정하고 투표를 하게 된다. 다섯째, 결과단계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과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행태를 기억하게 된다. 만약,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결과를 가져오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만, 낙선하게 된다면 자기합리화를 하게 되며 다음 선거에 회고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Raid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Raid의 모형



자료: Raid(1988: 34)

제 4 절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1. 제13대-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과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지역주의 성향이 투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구한 이갑윤(1989)의 연구인데, 그는 지역주의 성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3대 국회의원 선거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여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화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 도시와 농촌간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등의 사회학적 분포가 다르고 이들 요인에 의해 정당지지도가 달라지며, 이들 중 가장 큰 영향변수는 교육수준과 연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야당지지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설명력을 잃고 지역이라는 단일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이남영(1992)의 연구도 이갑윤(1989)과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 능력은 지역주의 외에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박찬욱(1992)의 연구결과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1/5정도가 후보자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지능력이 투표 참여의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투표 효능감, 정당에 대한 신뢰 및 선거의 공정성 인식 또한 주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으며, 유권자가 중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가 투표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이남영(1993)의 연구는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긍정적 참여형, 저항적 참여형, 낙관적 방임형, 비관적 포기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긍정적 참여형은 정치 체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여 투표를 하는 사람이며, 저항적 참여형은 정치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야당지지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낙관적 방임형은 정치체제에 대체로 만족하나 투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당지지기반이며 여성, 고학력, 중간소득 계층으로 연령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비관적 포기형은 정치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며 기권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긍정적 참

여형과 낙관적 방임형이 56.6%, 저항적 참여형 35.0%, 비관적 포기형 8.4%로 나타났고, 투표여부결정요인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 연령효과와 교차변수인 직업효과를 들고 있다. 또한 도시화가설이 투표여부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고 있어 농촌지역은 투표율이 높고 도시지역은 낮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이남영, 1993).

이러한 투표 성향은 연령, 학력, 출신지역 등과 같은 유권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야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중빈(1993)은 유권자의 심리적 특징에서 여야 성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범주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가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여야 성향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야당 성향을 보이고, 출신지역, 연령, 학력 순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성향의 차원에 대한 분석에서는 여야 구분이 정치일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유권자에게 안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여야 성향의 경험적 준거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여야 구분이 의미 있게 투표과정에 적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중빈, 199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제13대~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여야 성향”을 비롯한 지역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투표 참여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표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정치체계에 긍정적인 사람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형화된 지역주의와 정당이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갑윤, 1989; 이남영, 1992; 박찬욱, 1992; 조중빈, 1993).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변수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 표 2-1 〉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주요 변수

구분	연구자	주요 변수
제13대	이갑윤(1989)	여론 야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지역주의
제13대	이남영(1992)	도시화정도, 지역연고, 정당
제13대	박찬욱(1992)	선거에 대한 관심, 인지능력, 투표효능감, 정당, 지역주의
제14대	조중빈(1993)	여야성향, 출신지역, 연령, 정치인 평가

제15대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는 지역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 정치적 특성 및 정치적 이슈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299석 중 여당인 신한국당이 전체의 46.5%인 139석, 야당인 국민회의가 79석, 자민련이 50석을 확보하여 3당 체제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제14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149석에서 10석이 감소한데 비해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97석에서 18석이나 줄어든 결과로 50석을 얻은 자민련의 약진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치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냉소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 경향의 신한국당과 자민련을 합치면 189석으로 전체의 63.2%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 대학생의 시위 중 사망사건,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등으로 인해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리가 표로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15대 선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견고화된 지역주의였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영남지역을 근거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였고, 야당인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토대로 견고한 의석을 다진 가운데, 자민련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의석배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 구도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의석수가 15대 때보다 26석 줄어든 273석이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의석수가 많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선거 결과 1997년 정권을 잡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15대 때보다 36석이나 증가한 115석을 얻었지만,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133석을 확보해 제1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반면, 15대 국회에서 50석을 확보했던 자민련은 17석을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한 양당체제가 형성되었다.

제16대 선거에서는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가 여전히 작용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가 두드러졌다. 한나라당이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남북 60석을 단 한 석도 놓치지 않고 싹쓸이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 이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경제인,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치신인 발굴에 공을 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그리고 16대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신상공개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후보들에 대한 과거 전력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정당 간 대결구도 보다는 인물본위의 대결 구도로 선거의 방향이 잡혔다. 결국 서울지역의 경우 새천년민주당이 전체 45석 중 28석을 확보하여 17석에 그친 한나라당을 압도하였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전 1998년 2월 25일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2000년 2월 9일에는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조정과 더불어 연중 상시 개원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정치개혁입법이 마련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낙선운동 이었다. 이갑윤·이현우(2002)는 후보자 요인의 속성을 갖는 4개 변수인 현직효과, 당적변경, 세대교체, 낙선운동이 득표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직효과는 연속적인 출마로 인해 인지도의 향상으로 인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당적변경은 당직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유·불리가 없다고 하였다. 후보자요인

중 젊은 세대라는 연령효과는 무의미하였으며, 지역주의가 약한 서울·경기 지역에서 낙선운동에 의한 후보자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5대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미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은 정당요인의 영향력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 정당노선의 수렴으로 정당간의 차이가 없지만, 지역 정당제가 고착되어 후보자 요인보다 정당요인으로 투표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영재·엄기홍(2002)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낙선운동이 다른 변수 또는 지역주의 여부를 떠나 투표 참여가 정당지지 결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실시되기 한 달 전에 있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원안 가결이라는 핵폭발의 정점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이루어낸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결론지어졌다. 선거 결과 총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그리고 기타 3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10석은 최초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힘입은 것으로 우리나라 의회 역사와 선거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발 정서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민심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민심은 총 299명의 당선자중 70.6%인 211명이 초선이었고, 연령 면에서 50대 이하가 전체의 83.6%인 250명에 달했다는 측면에서 급격한 세대교체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의원이 전체의 13%인 39명에 이르면서 여성의 정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지난 제16대 선거에서 영남지역 60석 전체를 석권했던 한나라당 텃밭에서 열린우리당이 부산 1석, 경남 2석 등 3석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속에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386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17대 국회에 입성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변화의 일면이었고, 이들의 입법 활동이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

올 지도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선거 직전인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대의 이슈가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선거 직후인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4월 9일 치러졌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파생된 공천파동의 여파는 ‘친박연대’라는 급조 정당을 탄생시켰다. 선거 결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22석을 포함하여 153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고, 제17대 당시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비례대표 15석을 포함하여 81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민련을 모체로 하는 자유선진당이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하여 18석을 획득했지만, 선거 직전 급조된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8석을 포함하여 13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제16대와 제17대 선거에서 거의 전체 의석을 독점했던 대구, 경북 및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무소속과 ‘친박연대’ 돌풍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선 18석 중 7석을 무소속과 ‘친박연대’ 등이 차지하였고, 대구에선 12석 중 4석을 ‘친박연대’와 무소속이 확보했으며, 경남에선 17석 중 4석, 경북에선 15석 중 6석이 무소속과 ‘친박연대’ 등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결과는 친 박근혜 정서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당시의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당시 집권세력에 의한 공천갈등과 정권출범 초기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인사의 난맥상 등에서 국민들의 외면과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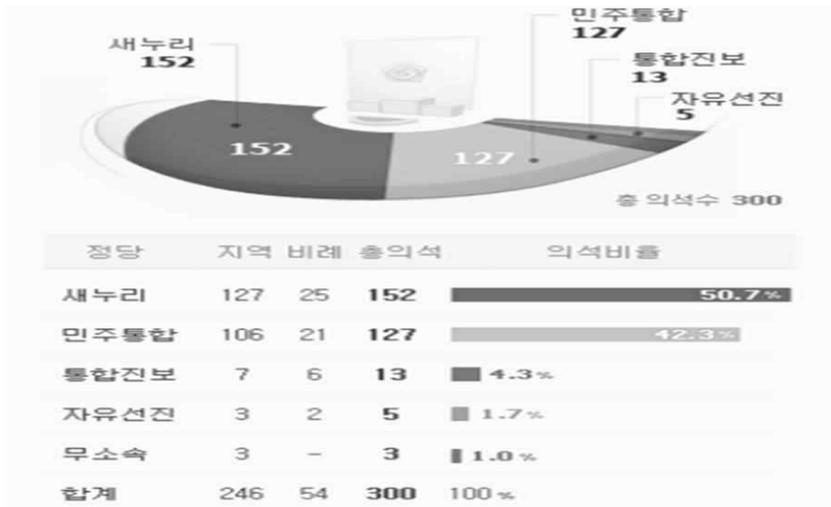
특이하게도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이 독점하여 친 여당 경향의 표심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경험에서 진보적인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국회 의석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쉽게 이해된다.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야는 향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조정을 통해 19대부터는 기존 299석에서 1석 늘어난 300석이 되었다.

선거 결과 아래의 <그림 2-8>과 같이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25석을 포함, 총 152석을 확보하여 과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21석을 포함하여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사실상 참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대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제18대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25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제19대 선거에서는 단 3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이러한 무소속의 약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킨 반면, 무소속의 경우는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 수 현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에서 자료를 재구성

위와 같은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에게는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연말의 대통령 선거 시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반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공동책임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약진했으나, 목표했던 1위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특히 민주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명숙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과반 의석을 노렸던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최악의 상황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100석 안팎이라고 우려했지만, ‘재창당을 뛰어 넘는 쇄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력이 민심에 부응하면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권에서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하였고, 충청과 강원에서 선전을 하였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을 야권에 내주었다.

선거 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지면서 주도권을 쥐었던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의 각종 잡음과 선거 막판에 불거진 서울 노원 갑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등의 돌출 변수에 의한 여론 악화를 수습하지 못한 것을 패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제18대 선거에서 40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16석을 얻는데 그쳐, 30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크게 뒤졌으며, 통합진보당이 2석을 얻었다.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특징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특징

구분	투표율		의석 수		주요 특징
	전국	서울	전국	서울	
15대	63.9%	51.0%	299	47	· 지역주의
16대	57.2%	54.4%	273	45	· 지역주의 · 후보자 신상공개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7대	60.6%	62.2%	299	48	· 탄핵사건 · 초선211명 당선 · 여성정계진출 가시화 · 386운동권출신 입성 · 비례대표제 도입
18대	46.1%	45.8%	299	48	· 공천 파동 친박연대 탄생 · 무소속과 친박연대 돌풍 · 진보진영 견제심리
19대	54.2%	55.2%	300	48	· 지역투표 · 이명박 정부 평가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 · 야당 후보의 막말파문

위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투표 행태는 지역주의라는 변수가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학문적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한국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 행태의 특징

이갑윤(2011)은 역대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 변화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이갑윤(2011)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은 시도하였다. 그는 한국인의 투표 행태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인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투표 행태와 관련한 연구의 시초는 사회학적 모형과 심리문화적 모형으로 연구가설, 여론조사 자료 수집,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이다(이갑윤,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설정하고, 미시적인 계량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질적인 분석을 도외시하여 투표현상이 현실 정치에 지니는 의미를 제시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기존에 서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투표 행태와 관련한 이론이 과연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계급이론은 투표 행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계급 투표와 관련한 경험적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투표 현상에 집중되어 있었다(이갑윤, 2011).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된 투표 행태 연구는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정부 업적에 대한 평가, 이슈 및 후보자 투표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이외에도 사회적, 심리문화적, 합리모형의 경험적 입증에 대한 시도를 통해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검증이라는 양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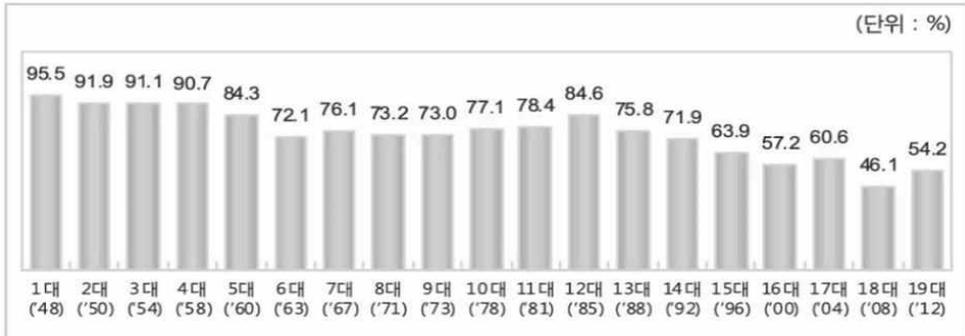
그러나 이갑윤(2011)은 한국인의 투표 행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가 지나고 있었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 가지 독립변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른 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비교하기 어렵고,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적 경로에 대한 분석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투표 행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선거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표 행태의 지속성을 동시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투표 참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가운데 연령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계층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성향과 태도 변수 가운데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표 의무감과 지지정당 유무, 정치적 신뢰도나 효능감과 같은 일반적 정치적 정향은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민주화 이후 투표율 하락 원인은 세대효과 이외에는 찾을 수 없으며 연령집단별 투표율 차이로 인해 정당 득표율을 왜곡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이갑윤, 2011).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정당과 후보자 지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인과관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출신지역이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며, 연령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투표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민 호감도와 같은 심리문화적 변수이고,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호남지역 출신 투표자가 영남지역 출신 투표자보다 지역투표 성향이 높고, 출신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지역 투표 성향이 더 높은 반면, 영남 지역 젊은 세대 지역투표 성향은 나이 많은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표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지지와 같은 당파적 변수와 이념성향 변수였다. 정당지지는 서구에서의 정당 귀속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다른 정치정향과 태도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이갑윤, 2011).

셋째, 경제사정 평가와 대통령 직무 평가와 같은 합리적 변수의 영향력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사정 평가와 대통령 직무 평가가 후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직무평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인과관계 최종 단계에서는 후보자와 이슈 변수의 영향력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이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직자 효과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단기적 변수인 이슈 영향력도 1997년 IMF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과 2004년 국회의원 선거 탄핵 심판 등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다른 선거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크기를 단계별로 비교하면 설명력을 가장 증가시킨 것은 당파적 태도와 이념 성향 이다. 그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출신지역과 연령은 2004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그 중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후보자 변수의 영향력은 정당지지와 출신지역 변수와 비교될 만큼 큰 영향력을 보였으나, 합리적 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게 나타났다(이갑윤, 2011).

이갑윤(2011)은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투표 행태를 지속성과 변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측면에서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특수성 보다는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투표 행태에 가장 큰 특징은 투표 결정 요인으로 출신지역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과, 2000년대에 들어 세대투표, 이념투표, 경제투표 등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투표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고 강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역민과 정당 간의 선거연합 형성되어 지역 정당제와 지역투표가 서로를 강화하며 존속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대북지원 쌀, 한미동맹, 기업규제, 교육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같은 이념적 갈등이 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하고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현상으로 지적된다. 국가 경제 평가와 대통령 직무평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것도 새로운 현상이지만 투표 행태가 지속적이라는 것은 이념투표와 합리적 투표의 설명력과 그 적용 범위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 변수들이 기존의 출신 지역이나 정당 지지

와 같은 당파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 행태의 보편성 여부는 서구 국가인가 비서구 국가인가에 따라 그리고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투표가 인종, 문화 산업 구조, 종교가 달라서 영국이나, 캐나다 등 몇몇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지역 균열 구조가 없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지역투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이갑윤, 2011).

이갑윤(2011)은 한국인의 투표 행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물론 투표 결정 과정에서 정당 지지와 지역투표에도 합리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심리문화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비합리성은 출신 지역이나 정당 지지와 같은 변수들이 개인의 투표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상쇄되어 집합적인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슈나 후보자 변수 또는 합리적 변수는 정당과 후보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집합적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이갑윤(2011)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로 인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외의 다른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역주의 성향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슈나 정권에 대한 평가가 투표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는 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에서의 정국상황,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희망사항,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의 노력 등에 의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주의 성향에 의해 투표 결과가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보다는 투표 당시의 변수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서울지역을 기초로 인물(지역구)과 정당(비례대표)에 대한 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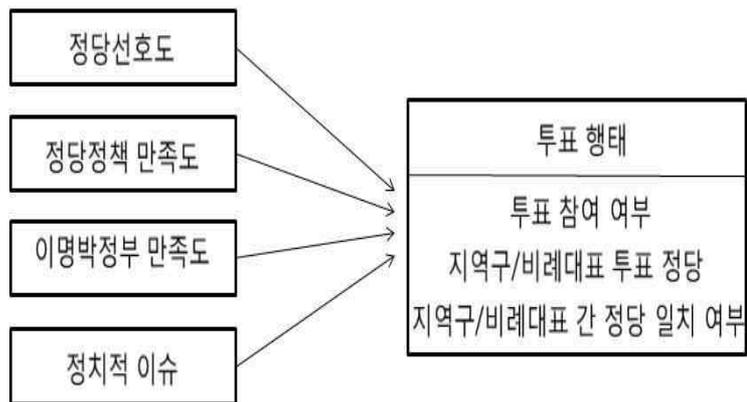
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개념 간의 인과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1> 분석의 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 정부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대두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치적 이슈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선호도, 정당 정책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 정치적 이슈를 독립변수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투표 참여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정당의 일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변수간의 관계 및 가설 설정

1. 정당 선호도와 투표 행태

유권자는 선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투표를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한 개인의 후보자를 지지하기 보다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Campbell(1960)은 정당일체감이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작용하여, 정치에 대한 심리적 관여 정도를 제고하고,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선거의 안정성과 정당의 제도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Sherif & Hovland(1961)는 비합리적 투표 행태 이론에서 사회적 판단이론은 선거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싫어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먼 곳으로 왜곡하여 투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당 선호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정당 선호도에 관한 가설

- 가설 I -1. 정당 선호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I -2.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 I -2-1.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 I -2-2.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할 것이다.
- 가설 I -3.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투표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가설 I -4. 정당 선호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을 다르게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정당 정책 만족도와 투표 행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평가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정당들은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정책은 실종되고, 선거의 승리나 득표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갑윤(2002)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야당일 때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장승진(2012)은 기존의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이념 및 세대에 기반한 새로운 균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권자의 진보-보수 이념이 투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당 정책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 정당 정책 만족도에 관한 가설

가설 II-1. 정책 만족도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2. 정책 만족도는 유권자의 여당 / 야당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3. 유권자의 정책 만족도는 여야성향에 따라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3-1. 진보성향 정책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는 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I-3-2. 보수성향 정책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는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4.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이명박 정부 만족도와 투표 행태

이현우(1998)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분석에서 김영삼 정부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을 중심으로 한 회고적 평가와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공존한 선거라고 했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회고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선거 시 제시되는 정책적 공약을 평가하고 투표하는 전망적인 투표를 할 것인가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owns(1957)는 경제원칙을 투표선택행위에 적용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당의 과거 실적이나 미래 공약을 평가하여 후보를 선택한다는 합리적(경제적) 선택이론을 주장하였으며, 합리적 투표 행태에는 후보의 정책공약에 근거하여 당선 후 제공할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투표의사를 결정한다는 전망적 투표 행태와 단지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과 관련하여 투표의사를 결정한다는 과거 회고적 투표 행태가 있다고 하였다. 이갑운(2011)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사정 평가와 대통령 직무평가가 후보자 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매우 제한된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조사된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 직무평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사정 평가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Ⅲ]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관한 가설

- 가설Ⅲ-1. 이명박 정부 만족도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Ⅲ-2.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가설Ⅲ-3.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정치적 이슈와 투표 행태

장승진(2012)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정권 심판론과 새누리당의 야권 심판론은 모두 지역구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처럼 선거기간 동안의 정치적 이슈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표심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더구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의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선거 초반부터 어느 선거와 달리 대선을 겨냥한 전초전이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나, 선거 막판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은 야당의 승리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이슈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 정치적 이슈에 관한 가설

가설IV-1. 정치적 이슈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IV-2. 정치적 관심도는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2-1. 야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것이다.

IV-2-2. 여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것이다.

가설IV-3.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3-1〉 가설의 요약

요인	가설번호	가설
정당선호도	가설 I-1	정당 선호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2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가설 I-2-1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가설 I-2-2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할 것이다.
	가설 I-3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투표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I-4	정당 선호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을 다르게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당 정책 만족도	가설 II-1	정책 만족도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2	정책 만족도는 유권자의 여당/야당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3	유권자의 정책 만족도는 여야성향에 따라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3-1	진보성향 정책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는 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3-2	보수성향 정책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는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4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만족도	가설 III-1	이명박 정부 만족도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2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I-3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치적 이슈	가설 IV-1	정치적 이슈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V-2	정치적 관심도는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V-2-1	야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것이다.
	가설 IV-2-2	여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것이다.
	가설 IV-3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구성과 측정

〈표 3-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변수		측정
종속변수	투표 참여=1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1
	지역구 여당투표=1	지역구 후보 중 여당에 투표했을 경우=1
	비례대표 여당투표=1	비례대표 중 여당에 투표했을 경우=1
	지역구와 비례대표 불일치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다른 정당에 투표할 경우=1
정당선호도	새누리당 선호	리커트 5점 척도(매우 선호하지 않음=1, 매우 선호=5)
	민주통합당 선호	
	자유선진당 선호	
	통합진보당 선호	
	기타정당 선호	
선거공약 만족도		각 정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만족도의 요인점수
정권만족도		현 정권의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요인 점수
정치적 이슈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치 쟁점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
정치이슈	현정부 평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막말 파문	
	민간인불법사찰	
	한미 FTA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연령		연령의 로그 값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 100만 원-800만 원까지 100만원 단위(1-8점)
종교	기독교=1	기독교일 경우 1로 코딩
	천주교=1	천주교일 경우 1로 코딩
	불교=1	불교일 경우 1로 코딩
	기타종교=1	기타종교일 경우 1로 코딩
직업	회사원=1	회사원일 경우 1로 코딩
	자영업=1	자영업자일 경우 1로 코딩
	서비스업=1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1로 코딩
	공무원=1	공무원일 경우 1로 코딩
	전문직=1	전문직일 경우 1로 코딩
교육수준	대졸이상=1	대졸이상일 경우 1로 코딩
거주지역	강북거주=1	강북 거주자의 경우 1로 코딩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 3-2>와 같이 변수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투표 참여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정당의 일치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표 행태를 지역구에서 여당 투표 여부, 비례대표 중 여당 투표 여부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여부의 경우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중 여당에 투표했을 경우에 각각 1로 야당에 투표할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 불일치 여부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다른 정당에 투표할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 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 정치적 이슈를 선정하였다.

1) 정당 선호도

본 연구에서 정당 선호도는 각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에 대해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선호한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환경을 통해 형성된 연대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지 정당을 선택하고 그 정당에 속한 후보를 위한 투표 행태를 보인다.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정당선호도의 특징은 유권자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서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정당 정책 만족도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정책 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보수성향 정당(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과 진보성향 정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점수로 활용하였다.

3) 이명박 정부 만족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이명박 정부 정책 중 4대강 정책, 복지 정책, 부동산 정책, 외교 정책, 교육 정책,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고, 응답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점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갑윤·이현우(2002)에 따르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일 때에는 현실 정치에 긍정적이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야당일 때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4) 정치적 이슈

본 연구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 정부 평가, 막말 파문, 민간인 불법 사찰, 한미 FTA,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등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에 대한 평균값과 각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신을 동봉한 우편발송과 조사 대상자의 e-mail을 활용한 전자우편 발송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800부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아래할 당량을 결정하고 무작위 추출하여 배포하였으며, 800부 중 674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84.3%를 나타냈다. 설문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별 선거인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 배포는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50장), 노원구(40장), 강서구(40장) 순으로 배포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별 선거인 수를 고려하되 응답률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여 각 지역별로 최소 10부 이상의 설문지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선거인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로구, 중랑구, 금천구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0부를 배포하였다.⁷⁾ 회수 결과 각 지역별 평균 응답률은 70.26%로 나타났으며, 종로구와 성동구, 노원구가 95.0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랑구가 42.86%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 값이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549개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7) 설문지가 20부 이하로 배포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률의 차이가 투표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응답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표본 수를 조정해 분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3〉 응답자 수 및 응답율

행정구	선거인 수(명)	투표자 수(명)	투표율 (%)	설문지 배포 수(장)	응답자	응답률
강남구	458,497	251,691	54.80%	40	22	55.00%
강동구	398,915	218,911	54.80%	40	21	52.50%
강북구	286,745	148,116	51.60%	25	21	84.00%
강서구	461,494	256,842	55.60%	40	22	55.00%
관악구	447,142	242,962	54.30%	40	27	67.50%
광진구	305,882	169,474	55.40%	30	20	66.67%
구로구	349,173	201,584	57.70%	35	19	54.29%
금천구	202,201	104,410	51.60%	20	17	85.00%
노원구	474,158	277,368	58.50%	40	38	95.00%
도봉구	296,221	165,048	55.70%	30	21	70.00%
동대문구	305,049	169,257	55.40%	30	23	76.67%
동작구	334,081	195,317	58.40%	30	23	76.67%
마포구	320,820	180,796	56.30%	30	22	73.33%
서대문구	259,696	147,510	56.70%	25	14	56.00%
서초구	350,857	198,923	56.60%	35	23	65.71%
성동구	248,408	137,055	55.10%	20	19	95.00%
성북구	396,475	213,422	53.80%	40	25	62.50%
송파구	548,482	315,430	57.50%	50	34	68.00%
양천구	390,010	221,401	56.70%	35	25	71.43%
영등포구	329,268	186,661	56.60%	30	16	53.33%
용산구	207,328	107,965	52.00%	20	15	75.00%
은평구	404,596	216,594	53.50%	40	32	80.00%
종로구	141,759	81,211	57.20%	20	19	95.00%
중구	115,422	63,009	54.50%	20	16	80.00%
중랑구	348,505	183,466	52.60%	35	15	42.86%
합계	8,381,184	4,654,423	55.50%	800	549	70.26%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유권자를 중심으로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674부 중, 응답 누락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설문지를 제외하고 549부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응답자의 구성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56.47%(310명), 여자가 43.53%(239명)으로 남자가 약간 더 많고, 연령은 30대 이하가 34.61%(190명), 40대 35.52%(195명), 50대 이상 29.87%(164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68.99%(37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졸 28.80%(157명), 중졸 2.94%(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 13.30%(73명), 100~200만원 12.75%(70명), 200~300만원 56.64%(278명), 300~400만원 13.30%(73명), 400만 원 이상 10.72%(55명) 등이었고, 거주 지역은 강남이 39.16%(215명), 강북이 60.84%(334명)이었고, 출신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73.04%(401명), 강원충청 8.74%(48명), 광주전라 6.38%(35명), 대구부산경상 7.83(43%), 제주 기타가 4.01%(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의 이와 같은 특성은 타 연구와 비교하여 지역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는 종교 없음이 60.66%(333명)으로 가장 많고, 기독교 15.85%(87명), 천주교 10.75%(59명), 불교 7.65%(42명), 기타 5.10%(28명)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직업은 회사원이 33.6%(19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 13.84%(76명), 기타 10.73%(60명), 서비스업 8.20%(45명), 전문직 5.65%(31명), 공무원 6.01%(33명), 없음 3.83%(21명), 학생 2.91%(16명)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10	56.47
	여자	239	43.53
연령	30대 이하	190	34.61
	40대	195	35.52
	50대 이상	164	29.87
학력	중졸	16	2.94
	고졸	157	28.80
	대졸이상	376	68.99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73	13.30
	100~200만원	70	12.75
	200~300만원	278	56.64
	300~400만원	73	13.30
	400만원 이상	55	10.02
지역	강남	215	39.16
	강북	334	60.84
출신지역	서울인천경기수도권	401	73.04
	강원충청	48	8.74
	광주전라	35	6.38
	대구부산경상	43	7.83
	제주기타	22	4.01
종교	기독교	87	15.85
	천주교	59	10.75
	불교	42	7.65
	기타	28	5.10
	없음	333	60.66
직업	회사원	190	34.61
	자영업	76	13.84
	학생	16	2.91
	주부	77	14.03
	서비스업	45	8.20
	공무원	33	6.01
	전문직	31	5.65
	기타	60	10.93
	없음	21	3.83
Total		549	100

아래의 〈표 4-2〉는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 참여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새누리당으로 전체 응답자 중 218명 (39.71%)이 선호함 혹은 매우 선호함(5.1%)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

통합당의 경우 선호함 124명(22.59%), 매우 선호함 16명(2.91%)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에 대한 선호도는 선호함 21.49%, 매우 선호함 3.10%였으며, 통합진보당은 선호함 23.32%, 매우 선호함 3.10%이었다.

〈표 4-2〉 정당 선호도

	매우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새누리당	15 (2.73)	57 (10.38)	231 (42.08)	218 (39.71)	28 (5.10)
민주통합당	15 (2.73)	74 (13.48)	320 (58.29)	124 (22.59)	16 (2.91)
자유선진당	21 (3.83)	149 (27.14)	244 (44.44)	118 (21.49)	17 (3.10)
통합진보당	39 (7.10)	109 (19.85)	256 (46.63)	128 (23.32)	17 (3.10)

주: N=549, 괄호 안은 비율

아래의〈표 4-3〉은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 참여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 4-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를 제외하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에 대한 선호도와 투표 참여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 중 통합진보당을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9명(31.52%)인 반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 통합진보당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매우 선호하지 않음 37명(8.10%), 선호하지 않음 96명(21.01%)으로 약 29.11%의 응답자가 통합진보당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99명(21.66%), 매우 선호함 17명(3.72%)로 25.39%가 선호한다고 하여 투표 참여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 참여 여부

정당	투표여부	매우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N	카이제곱	유의확률
새누리당	투표함	13 (2.84)	47 (10.28)	187 (40.92)	184 (40.26)	26 (5.69)	457	3.08	0.54
	투표안함	2 (2.17)	10 (10.87)	44 (37.83)	34 (36.96)	2 (2.17)	92		
민주통합당	투표함	14 (3.06)	57 (12.47)	266 (58.21)	105 (22.98)	15 (3.28)	457	4.59	0.33
	투표안함	1 (1.09)	17 (18.48)	54 (58.70)	19 (20.65)	1 (1.09)	92		
자유선진당	투표함	19 (2.17)	24 (26.09)	39 (42.39)	24 (26.09)	3 (3.26)	457	2.03	0.73
	투표안함	2 (2.17)	24 (26.09)	39 (42.39)	24 (26.09)	3 (3.26)	92		
통합진보당	투표함	37 (8.10)	96 (21.01)	208 (45.51)	99 (21.66)	17 (3.72)	457	12.94	0.01
	투표안함	2 (2.17)	13 (14.13)	48 (52.17)	29 (31.52)	0 (0.00)	92		

주: N=549, 괄호 안은 비율

정당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아래의 〈표 4-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549명 중 353명(64.3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도 36명(6.56%)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49명 중 146명(26.59%),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명(4.55%)로 31.14%의 응답자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43명(26.0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6명(4.74%)였으며, 통합진보당은 만족 144명(26.33%),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7명(8.56%)이었다.

〈표 4-4〉 정당 정책 만족도

정당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새누리당	7 (1.28)	29 (5.28)	124 (22.59)	353 (64.30)	36 (6.56)
민주통합당	8 (1.46)	45 (8.20)	325 (59.20)	146 (26.59)	25 (4.55)
자유선진당	8 (1.46)	115 (20.95)	257 (46.81)	143 (26.05)	26 (4.74)
통합진보당	21 (3.83)	96 (17.49)	241 (43.90)	144 (26.33)	47 (8.56)

주: N=549, 괄호 안은 비율

〈표 4-5〉 정당 정책 만족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정당 정책	투표 정당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N	카이제곱	유의 확률
새누리당	여당	0 (0.00)	3 (2.83)	20 (18.87)	75 (70.75)	8 (7.55)	106	4.24	0.373
	야당	5 (1.43)	19 (5.43)	82 (23.43)	221 (63.14)	23 (6.57)	350		
민주통합당	여당	2 (1.89)	18 (16.98)	60 (50.60)	22 (20.75)	4 (3.77)	106	22.43	0.000
	야당	4 (1.14)	14 (4.00)	213 (60.86)	102 (29.14)	17 (4.86)	350		
자유선진당	여당	3 (2.83)	29 (27.36)	46 (40.40)	23 (21.70)	5 (4.72)	106	6.79	0.147
	야당	3 (0.86)	66 (18.86)	165 (47.14)	99 (28.29)	17 (4.86)	350		
통합진보당	여당	14 (13.21)	24 (22.64)	43 (40.7)	20 (18.87)	5 (4.72)	106	35.41	0.000
	야당	5 (1.43)	54 (15.43)	158 (45.14)	95 (27.14)	38 (10.86)	350		

주: N=456, 괄호 안은 비율

정당 정책 만족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행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정책 만족도에 있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의 정당 정책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4.02%인 반면 여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은 24.52%로 나타났으며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통합진보당 선호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은 38.00%로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 23.59%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야당 투표율을 나타냈다.

〈표 4-6〉 정당 정책 만족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정당 정책	투표 정당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N	카이제곱	유의 확률
새누리당	여당	0 (0.00)	2 (1.59)	22 (17.46)	93 (73.81)	9 (7.14)	126	9.71	0.045
	야당	5 (1.52)	20 (6.06)	80 (24.24)	203 (61.52)	22 (6.67)	330		
민주통합당	여당	4 (3.17)	16 (12.70)	69 (54.76)	35 (27.78)	2 (1.59)	126	16.80	0.002
	야당	2 (0.61)	16 (4.85)	204 (61.82)	89 (26.97)	19 (5.76)	330		
자유선진당	여당	2 (1.59)	28 (22.22)	62 (49.21)	28 (22.22)	6 (4.76)	126	1.92	0.750
	야당	4 (1.21)	67 (20.30)	149 (45.15)	94 (28.48)	16 (4.85)	330		
통합진보당	여당	12 (9.52)	27 (21.43)	55 (43.65)	19 (15.08)	13 (10.32)	126	21.14	0.000
	야당	7 (2.12)	51 (15.45)	146 (44.24)	96 (29.09)	30 (9.09)	330		

주: N=456, 괄호 안은 비율

반면 정당 정책만족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행태는 지역구 투표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여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은 80.95%인 반면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는 68.1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새누리당 만족도에 따른 여당 및 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투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정책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야당에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표 4-7>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4대강 사업으로 전체 549명의 응답자 중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311명(56.6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명(0.91%)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복지 정책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28명(23.32%), 매우 만족함 2.19%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외교정책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만족하지 않음 혹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각각 31.88%, 19.31%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7> 이명박 정부 정책만족도

이명박 정부정책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4대강 사업	34 (6.19)	54 (9.84)	145 (26.41)	311 (56.65)	5 (0.91)
복지정책	15 (2.73)	75 (13.66)	319 (58.11)	128 (23.32)	12 (2.19)
부동산 정책	33 (6.01)	142 (25.87)	195 (35.52)	142 (25.87)	37 (6.74)
외교정책	17 (3.10)	89 (16.21)	235 (42.81)	180 (32.79)	28 (5.10)
교육정책	19 (3.46)	75 (13.66)	276 (50.27)	152 (27.69)	27 (4.92)
대북정책	35 (6.38)	70 (12.75)	235 (42.81)	169 (30.78)	40 (7.29)

주: N=549, 괄호 안은 비율

이명박 정부 정책 만족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행태는 복지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일수록 여당인 새누리당에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경우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당에 투표한 응답자들은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8.68%,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77%로 나타났다.

〈표 4-8〉 이명박 정부 정책 만족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행태

정책	투표 정당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N	카이제곱	유의 확률
4대강 사업	여당	6 (4.55)	12 (11.32)	33 (31.13)	54 (50.94)	1 (0.94)	106	2.78	0.595
	야당	22 (6.29)	30 (8.57)	88 (25.14)	27 (59.14)	3 (0.86)	350		
복지 정책	여당	0 (0.00)	16 (15.09)	45 (42.45)	41 (38.68)	4 (3.77)	106	22.08	0.000
	야당	9 (2.57)	48 (13.71)	218 (62.29)	69 (19.71)	6 (1.71)	350		
부동산 정책	여당	8 (7.55)	30 (28.30)	34 (32.08)	26 (24.53)	8 (7.55)	106	1.94	0.746
	야당	19 (5.43)	87 (24.86)	32 (37.71)	90 (25.71)	22 (6.29)	350		
외교 정책	여당	2 (1.89)	14 (13.21)	51 (48.11)	32 (30.19)	7 (6.60)	106	2.31	0.678
	야당	10 (2.86)	59 (16.86)	146 (41.71)	117 (33.43)	18 (5.14)	350		
교육 정책	여당	5 (4.72)	17 (16.04)	55 (51.89)	25 (23.58)	4 (3.77)	106	4.80	0.308
	야당	6 (1.71)	48 (13.71)	174 (49.71)	105 (30.00)	17 (4.86)	350		
대북 정책	여당	6 (5.66)	16 (15.09)	38 (35.85)	34 (32.08)	12 (11.32)	106	5.17	0.269
	야당	23 (6.57)	36 (10.29)	158 (45.14)	108 (30.86)	25 (7.14)	350		

주: N=456, 괄호 안은 비율

반면 이명박 정부 정책 만족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행태는 대북 정책과 교육 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 만족

한다는 응답(30.16%)과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15.08%)으로 여당에 투표한 사람들 중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야당에 투표한 사람들 중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45%로 여당에 투표한 응답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9> 이명박 정부 정책만족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행태

정책	투표 정당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N	카이제곱	유의 확률
4대강 사업	여당	3 (2.38)	15 (11.90)	32 (25.40)	74 (58.73)	2 (1.59)	126	6.53	0.163
	야당	25 (7.58)	27 (8.18)	89 (26.97)	187 (56.67)	2 (0.61)	330		
복지 정책	여당	1 (0.79)	18 (14.29)	70(55.5 6)	33 (26.19)	4 (3.17)	126	2.44	0.654
	야당	8 (2.42)	46 (13.94)	193 (58.48)	77 (23.33)	6 (1.82)	330		
부동산 정책	여당	5 (3.97)	29 (23.02)	43 (34.13)	35 (27.78)	14 (11.11)	126	7.65	0.105
	야당	22 (6.67)	88 (26.67)	123 (37.27)	81 (24.55)	16 (4.85)	330		
외교 정책	여당	0 (0.00)	18 (14.29)	60 (47.62)	39 (30.95)	9 (7.14)	126	6.72	0.151
	야당	12 (3.64)	55 (16.67)	137 (41.52)	110 (33.33)	16 (4.85)	330		
교육 정책	여당	3 (2.38)	11 (8.73)	68 (53.97)	34 (26.98)	10 (7.94)	126	8.55	0.073
	야당	8 (2.42)	54 (16.36)	161 (48.79)	96 (29.09)	11 (3.33)	330		
대북 정책	여당	3 (2.38)	15 (11.90)	51 (40.48)	38 (30.16)	19 (15.08)	126	15.09	0.005
	야당	26 (7.88)	37 (11.21)	145 (43.94)	104 (31.52)	18 (5.45)	330		

주: N=456, 괄호 안은 비율

또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 중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 중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6.36%,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42%인 반면, 여당에 투표한 응답자 중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3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73%로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와 비교하여 교육 정책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10>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꼽았다. 현 정부 평가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한 이슈라고 한 응답자는 343명(62.48%),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 33명(6.01%)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현 정부 평가를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목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로 228명(41.53%)의 응답자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도 41명(7.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0>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요도

국회의원 선거 이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 정부평가	7 (1.28)	76 (13.84)	90 (16.39)	343 (62.48)	33 (6.01)
막말파문	4 (0.73)	62 (11.29)	263 (47.91)	184 (33.52)	36 (6.56)
민간인 불법사찰	6 (1.09)	67 (12.20)	246 (44.81)	206 (37.52)	24 (4.37)
한미 FTA	6 (1.09)	103 (18.76)	209 (38.07)	201 (36.61)	30 (5.46)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9 (1.64)	78 (14.21)	193 (35.15)	228 (41.53)	41 (7.47)

주: N=549, 괄호 안은 비율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현 정부 평가였으나, 유권

자들이 여당 및 야당 후보에 대한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막말파문이 었다. 특히 여당에 투표한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당 투표 응답자들 중 막말파문이 중요한 이슈라고 한 응답자는 그렇다 33.43%, 매우 그렇다 16.04%로 약 50%의 응답자가 막말파문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들 중 막말 파문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그렇다 33.43%, 매우 그렇다 4.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1〉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요도에 따른 지역구 투표

국회 의원 선거 이슈	투표 정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카이제곱	유의 확률
현 정부 평가	여당	1 (0.94)	12 (11.32)	25 (23.58)	62 (58.49)	6 (5.66)	106	5.34	0.254
	야당	4 (1.14)	54 (15.43)	51 (14.57)	216 (61.71)	25 (7.14)	350		
막말 파문	여당	1 (0.94)	7 (6.60)	42 (39.62)	39 (36.79)	17 (16.04)	106	19.28	0.000
	야당	1 (0.29)	48 (13.71)	167 (47.71)	117 (33.43)	17 (4.86)	350		
민간 인 불법 사찰	여당	1 (0.94)	12 (11.32)	465 (43.40)	42 (39.62)	5 (4.72)	106	0.48	0.975
	야당	3 (0.86)	43 (12.29)	161 (46.00)	126 (36.00)	17 (4.86)	350		
한미 FTA	여당	0 (0.00)	22 (20.75)	39 (36.79)	43 (40.57)	2 (1.89)	106	5.11	0.276
	야당	3 (0.86)	70 (20.00)	130 (37.14)	123 (15.14)	24 (6.86)	350		
국회 의원 선거 여론 조사	여당	3 (2.83)	18 (16.98)	42 (39.62)	31 (29.25)	12 (11.32)	106	7.74	0.102
	야당	5 (1.43)	48 (13.71)	116 (33.14)	153 (43.71)	28 (8.00)	350		

주: N=456, 괄호 안은 비율

막말 파문은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여당 투표 응답자들 중 막말파문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렇다 33.33%, 매우 그렇다 14.29%로 나타난 반면 여당 투표 응답자 중 막말파문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렇다 34.55%, 매우 그렇다 4.8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2〉 국회의원 선거 이슈 중요도에 따른 비례대표 투표

국회의원 선거 이슈	투표 정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카이제곱	유의 확률
현 정부 평가	여당	0 (0.00)	17 (13.49)	27 (21.43)	74 (58.73)	8 (6.35)	126	4.58	0.332
	야당	5 (1.52)	49 (14.85)	49 (14.85)	204 (61.82)	23 (6.97)	330		
막말 파문	여당	0 (0.00)	12 (9.52)	54 (42.86)	42 (33.33)	18 (14.29)	126	12.96	0.011
	야당	2 (0.61)	43 (13.03)	155 (46.97)	114 (34.55)	16 (4.85)	330		
민간 인 불법 사찰	여당	0 (0.00)	14 (11.11)	57 (45.24)	48 (38.10)	7 (5.56)	126	1.92	0.749
	야당	4 (1.21)	41 (12.42)	150 (45.45)	120 (36.36)	15 (4.55)	330		
한미 FTA	여당	0 (0.00)	24 (19.05)	52 (41.27)	44 (34.92)	6 (4.76)	126	2.46	0.651
	야당	3 (0.91)	68 (20.61)	117 (35.45)	122 (36.97)	20 (6.06)	330		
국회의원 선거 여론 조사	여당	2 (1.59)	21 (16.67)	42 (33.33)	46 (36.51)	15 (11.90)	126	3.27	0.512
	야당	6 (1.82)	45 (13.64)	116 (35.15)	138 (41.82)	25 (7.58)	330		

주: N=456, 괄호 안은 비율

본 연구는 정당 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 정치적 이슈에 따라 투표 참여 여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 행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은 투표 미참여자

와 투표 참여자 별로 아래의 <표 4-13>, <표 4-14>와 같다.

<표 4-13> 기술통계량 1 (투표 미참여자 포함)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투표 참여=1	549	0.832	0.374	0	1
새누리당 선호	549	3.341	0.836	1	5
민주통합당 선호	549	3.095	0.761	1	5
자유선진당 선호	549	2.929	0.872	1	5
통합진보당 선호	549	2.954	0.916	1	5
기타정당 선호	549	2.996	0.865	1	5
선거공약 만족도	549	0.025	0.988	-4.084	2.455
정권만족도	549	0.088	0.929	-3.086	2.485
정치적 이슈	549	0.028	0.914	-4.137	2.884
현정부 평가	549	3.581	0.848	1	5
막말 파문	549	3.339	0.791	1	5
민간인불법사찰	549	3.319	0.784	1	5
한미 FTA	549	3.266	0.864	1	5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549	3.390	0.878	1	5
연령	549	42.931	10.024	21	78
소득수준	549	2.940	1.092	1	5
기독교=1	549	0.158	0.366	0	1
천주교=1	549	0.107	0.310	0	1
불교=1	549	0.077	0.266	0	1
기타종교=1	549	0.051	0.220	0	1
회사원=1	549	0.346	0.476	0	1
자영업=1	549	0.138	0.346	0	1
서비스업=1	549	0.082	0.275	0	1
공무원=1	549	0.060	0.238	0	1
전문직=1	549	0.056	0.231	0	1
대졸이상=1	549	0.690	0.463	0	1
강북거주=1	549	0.608	0.489	0	1

〈표 4-14〉 기술통계량 2 (투표 미참여자 제외)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투표 참여=1	456	1.000	0.000	1	1
지역구 여당투표=1	456	0.232	0.423	0	1
비례대표 여당투표=1	456	0.277	0.448	0	1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일치=1	456	0.695	0.461	0	1
새누리당 선호	456	3.361	0.848	1	5
민주통합당 선호	456	3.108	0.770	1	5
자유선진당 선호	456	2.909	0.875	1	5
통합진보당 선호	456	2.918	0.949	1	5
기타정당 선호	456	3.000	0.888	1	5
선거공약 만족도	456	0.042	0.966	-4.084	2.455
정권 만족도	456	0.113	0.909	-3.086	2.485
정치적 이슈	456	0.037	0.914	-3.816	2.884
현 정부 평가	456	3.580	0.856	1	5
막말 파문	456	3.361	0.808	1	5
민간인 불법사찰	456	3.323	0.781	1	5
한미 FTA	456	3.259	0.867	1	5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456	3.396	0.901	1	5
연령	456	43.361	10.110	21	78
소득수준	456	2.969	1.073	1	5
기독교=1	456	0.170	0.376	0	1
천주교=1	456	0.108	0.311	0	1
불교=1	456	0.073	0.260	0	1
기타종교=1	456	0.046	0.211	0	1
회사원=1	456	0.354	0.479	0	1
자영업=1	456	0.142	0.349	0	1
서비스업=1	456	0.066	0.249	0	1
공무원=1	456	0.064	0.245	0	1
전문직=1	456	0.058	0.233	0	1
대출이상=1	456	0.695	0.461	0	1
강북거주=1	456	0.617	0.487	0	1

〈모형 1-1〉부터 〈모형1-5〉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도, 정당이 내건 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 미친 영향을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오즈(odds)는 4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투표에 참여할 오즈(odds)는 3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권에 대한 만족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 중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타 업종 종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 분석 모형(종속변수: 투표 참여여부, N=549)

변수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모형1-5
새누리당 선호도		0.203 (0.150)	0.178 (0.150)	0.133 (0.156)	0.132 (0.156)
민주통합당 선호도		0.379** (0.175)	0.356** (0.175)	0.391** (0.178)	0.385** (0.180)
자유선진당 선호도		-0.194 (0.145)	-0.235 (0.150)	-0.243 (0.150)	-0.244 (0.150)
통합진보당 선호도		-0.382** (0.156)	-0.413*** (0.159)	-0.411*** (0.159)	-0.407** (0.159)
기타정당 선호도		0.241 (0.170)	0.198 (0.175)	0.164 (0.178)	0.163 (0.178)
정당 정책만족도			0.185 (0.140)	0.117 (0.154)	0.116 (0.154)
정권만족도				0.170 (0.165)	0.168 (0.165)
정치적 이슈					0.037 (0.128)
(로그)연령	0.970** (0.476)	1.055** (0.490)	1.039** (0.492)	1.013** (0.495)	1.017** (0.495)
소득수준	0.079 (0.132)	0.052 (0.135)	0.051 (0.134)	0.049 (0.134)	0.052 (0.135)
기독교	0.577 (0.374)	0.647* (0.383)	0.657* (0.384)	0.675* (0.386)	0.666* (0.387)
천주교	0.183 (0.405)	0.184 (0.418)	0.242 (0.421)	0.260 (0.423)	0.257 (0.423)
불교	-0.095 (0.435)	-0.199 (0.445)	-0.155 (0.447)	-0.152 (0.447)	-0.157 (0.447)
기타	-0.339 (0.499)	-0.373 (0.513)	-0.422 (0.511)	-0.459 (0.513)	-0.458 (0.512)
회사원	0.048 (0.310)	0.132 (0.324)	0.163 (0.326)	0.211 (0.330)	0.201 (0.332)
자영업	-0.152 (0.425)	-0.039 (0.440)	-0.030 (0.441)	0.014 (0.443)	-0.001 (0.446)
서비스업	-0.869** (0.410)	-0.851** (0.419)	-0.852** (0.418)	-0.842** (0.418)	-0.840** (0.419)
공무원	0.885 (0.787)	1.028 (0.797)	1.018 (0.798)	1.020 (0.798)	1.011 (0.799)
전문직	-0.019 (0.570)	0.172 (0.581)	0.220 (0.583)	0.266 (0.583)	0.260 (0.584)
교육수준(대졸=1)	0.112 (0.263)	0.079 (0.267)	0.067 (0.268)	0.057 (0.268)	0.059 (0.268)
거주지(강북=1)	0.186 (0.240)	0.186 (0.244)	0.158 (0.246)	0.146 (0.246)	0.143 (0.246)
상수	-2.430 (1.716)	-3.526* (1.985)	-2.964 (2.033)	-2.724 (2.052)	-2.722 (2.052)
Pseudo R2	0.035	0.061	0.065	0.067	0.067
Log-Likelihood	-238.56	-232.19	-231.31	-230.78	-230.74
N	549	549	549	549	549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한편,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이슈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현 정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막말 파문,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 FTA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정책이슈 요인을 분석한 모형에서 549개의 표본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정치적 이슈의 분석모형(종속변수: 투표 참여여부, N=549)

변수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모형2-5
새누리당선호	0.132 (0.156)	0.148 (0.162)	0.133 (0.156)		
민주통합당선호	0.385** (0.180)	0.418** (0.183)	0.391** (0.178)		
자유선진당선호	-0.244 (0.150)	-0.223 (0.151)	-0.243 (0.150)		
통합진보당선호	-0.407** (0.159)	-0.398** (0.161)	-0.411*** (0.159)		
기타정당선호	0.163 (0.178)	0.149 (0.179)	0.164 (0.178)		
정당 정책만족도	0.116 (0.154)	0.120 (0.156)	0.117 (0.154)		
정권만족도	0.168 (0.165)	0.174 (0.167)	0.170 (0.165)		
정치적 이슈	0.037 (0.128)			0.093 (0.127)	
현정부평가		-0.142 (0.159)			-0.075 (0.154)
막말파문		0.216 (0.176)			0.240 (0.171)
민간인불법사찰		0.065 (0.174)			0.040 (0.168)
한미FTA		-0.101 (0.155)			-0.084 (0.151)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0.041			0.058
		(0.150)			(0.146)
(로그)연령	1.017**	1.005**	1.013**	0.983**	0.962**
	(0.495)	(0.501)	(0.495)	(0.478)	(0.482)
소득수준	0.052	0.076	0.049	0.085	0.110
	(0.135)	(0.137)	(0.134)	(0.132)	(0.135)
기독교	0.666*	0.669*	0.675*	0.567	0.552
	(0.387)	(0.394)	(0.386)	(0.374)	(0.379)
천주교	0.257	0.201	0.260	0.180	0.101
	(0.423)	(0.430)	(0.423)	(0.405)	(0.414)
불교	-0.157	-0.120	-0.152	-0.108	-0.079
	(0.447)	(0.452)	(0.447)	(0.436)	(0.439)
기타정당선호	-0.458	-0.497	-0.459	-0.340	-0.342
	(0.512)	(0.517)	(0.513)	(0.498)	(0.502)
회사원	0.201	0.180	0.211	0.033	-0.002
	(0.332)	(0.332)	(0.330)	(0.311)	(0.313)
자영업	-0.001	-0.028	0.014	-0.172	-0.204
	(0.446)	(0.446)	(0.443)	(0.426)	(0.427)
서비스업	-0.840**	-0.887**	-0.842**	-0.862**	-0.902**
	(0.419)	(0.422)	(0.418)	(0.411)	(0.414)
공무원	1.011	0.931	1.020	0.868	0.790
	(0.799)	(0.802)	(0.798)	(0.789)	(0.792)
전문직	0.260	0.173	0.266	-0.021	-0.115
	(0.584)	(0.590)	(0.583)	(0.570)	(0.576)
교육수준(대졸=1)	0.059	0.013	0.057	0.116	0.081
	(0.268)	(0.270)	(0.268)	(0.263)	(0.264)
거주지(강북=1)	0.143	0.134	0.146	0.177	0.157
	(0.246)	(0.250)	(0.246)	(0.240)	(0.244)
상수	-2.722	-3.106	-2.724	-2.482	-2.976
	(2.052)	(2.208)	(2.052)	(1.721)	(1.917)
Pseudo R2	0.067	0.067	0.072	0.067	0.036
Log-Likelihood	-230.74	-230.74	-229.50	-230.78	-238.30
N	549	549	549	549	549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투표율에 영향을 주기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 같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자유선진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유권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낮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을 제외한 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유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투표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과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기타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을 이용하여 각 정당의 선호도 대신 변수로 활용하였다. <모형3-1>과 <모형3-2>는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모형3-1>에서는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의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때, 투표 참여여부의 오즈(odds)는 2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3-2>에서도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의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때, 투표 참여여부의 오즈(odds)는 34.0%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기타정당에 대한 선호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모형3-1>에서 이들 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표준편차는 1단위 증가할 때 투표 참여여부의 오즈(odds)는 29.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형3-2>에서는 3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정치적 이슈의 분석모형(종속변수: 투표 참여여부, N=549)

변수	모형3-1	모형3-2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선호	0.458** (0.231)	0.515** (0.239)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기타정당 선호	-0.513** (0.222)	-0.500** (0.227)
정당 정책만족도	0.130 (0.152)	0.137 (0.155)
정권만족도	0.165 (0.155)	0.167 (0.157)
정치적 이슈	0.056 (0.125)	
현정부평가		-0.147 (0.158)
막말파문		0.220 (0.174)
민간인불법사찰		0.110 (0.172)
한미FTA		-0.107 (0.153)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0.036
		(0.149)
(로그)연령	0.964**	0.958*
	(0.488)	(0.493)
소득수준	0.046	0.069
	(0.133)	(0.135)
기독교	0.641*	0.647*
	(0.384)	(0.391)
천주교	0.182	0.147
	(0.416)	(0.424)
불교	-0.173	-0.138
	(0.445)	(0.449)
기타정당선호	-0.540	-0.579
	(0.503)	(0.508)
회사원	0.199	0.177
	(0.325)	(0.327)
자영업	-0.074	-0.099
	(0.438)	(0.439)
서비스업	-0.808*	-0.854**
	(0.414)	(0.418)
공무원	1.036	0.943
	(0.796)	(0.800)
전문직	0.169	0.076
	(0.579)	(0.585)
교육수준(대졸=1)	0.052	0.009
	(0.266)	(0.268)
거주지(강북=1)	0.150	0.144
	(0.244)	(0.248)
상수	-2.259	-2.792
	(2.021)	(2.180)
Pseudo R2	0.056	0.061
Log-Likelihood	-233.52	-232.11
N	549	549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제 2 절 투표 행태: 지역구 후보 투표 정당

본 연구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지역구 투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 여부의 오즈(odds)는 239.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수록 여당에 대한 투표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정당 중 여당의 대척점에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여당에 대한 투표 여부의 오즈(odds)는 3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진당에 대한 선호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여당에 대한 투표의 오즈(odds)는 26.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각각 99%와 90%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만족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8〉 분석모형(종속변수: 지역구 여당투표=1, N=456)

	모형4-1	모형4-2	모형4-3	모형4-4	모형4-5
새누리당 선호도		1.221***	1.220***	1.225***	1.222***
		(0.190)	(0.190)	(0.194)	(0.193)
민주통합당 선호도		-0.318*	-0.289	-0.294	-0.295
		(0.187)	(0.188)	(0.192)	(0.191)
자유선진당 선호도		-0.339**	-0.306*	-0.305*	-0.314*
		(0.161)	(0.165)	(0.165)	(0.167)
통합진보당 선호도		-0.539***	-0.500***	-0.500***	-0.494***
		(0.158)	(0.162)	(0.162)	(0.163)
기타정당 선호도		-0.177	-0.131	-0.127	-0.124
		(0.168)	(0.175)	(0.177)	(0.178)
정당 정책만족도			-0.179	-0.172	-0.168
			(0.160)	(0.168)	(0.169)
정권만족도				-0.025	-0.028
				(0.184)	(0.184)
정치적 이슈					0.068
					(0.150)
(로그)연령	0.754	0.003	0.019	0.018	0.029
	(0.509)	(0.562)	(0.564)	(0.564)	(0.564)
소득수준	0.142	0.082	0.080	0.079	0.083
	(0.126)	(0.146)	(0.145)	(0.145)	(0.146)
기독교	-0.198	-0.482	-0.499	-0.501	-0.503
	(0.329)	(0.375)	(0.376)	(0.377)	(0.377)
천주교	0.052	-0.927*	-0.977**	-0.973**	-0.977**
	(0.373)	(0.488)	(0.494)	(0.494)	(0.496)
불교	0.675*	0.540	0.509	0.505	0.497
	(0.401)	(0.478)	(0.479)	(0.480)	(0.480)
기타	-0.623	-1.016	-1.017	-1.012	-1.000
	(0.649)	(0.729)	(0.736)	(0.736)	(0.740)
회사원	0.221	0.148	0.128	0.124	0.107
	(0.295)	(0.332)	(0.332)	(0.334)	(0.336)
자영업	0.022	-0.490	-0.481	-0.484	-0.491
	(0.388)	(0.460)	(0.460)	(0.461)	(0.462)
서비스업	-0.259	-0.254	-0.229	-0.228	-0.218
	(0.515)	(0.572)	(0.574)	(0.574)	(0.575)
공무원	-0.269	0.011	0.001	0.005	-0.012
	(0.541)	(0.615)	(0.619)	(0.619)	(0.622)
전문직	-0.622	-0.402	-0.456	-0.460	-0.450
	(0.611)	(0.650)	(0.654)	(0.654)	(0.653)
교육수준(대졸=1)	-0.012	-0.239	-0.225	-0.218	-0.221
	(0.259)	(0.295)	(0.295)	(0.299)	(0.299)
거주지(강북=1)	-0.067	0.302	0.334	0.336	0.327
	(0.236)	(0.275)	(0.277)	(0.278)	(0.279)
상수	-4.435**	-1.550	-2.038	-2.051	-2.077
	(1.888)	(2.262)	(2.313)	(2.315)	(2.317)
Pseudo R2	0.026	0.194	0.196	0.196	0.0197
Log-Likelihood	-238.63	-197.42	-196.79	-196.78	-196.68
N	M=456	N=456	N=456	N=456	N=456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정치적 이슈에 대한 <모형5-1>부터 <모형5-5>까지의 분석 결과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사가 개별적으로 여당에 대한 투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외에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이슈가 되었던 막말 파문은 정치적 이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2>는 막말 파문에 대한 관심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여당에 투표할 오즈(odds)는 63.3%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신뢰수준 99.9%). 반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나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여당에 투표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1단위 증가할 때 여당에 대한 투표의 오즈(odds)는 2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는 1단위 증가할 때 오즈(odds)가 24.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9> 정치적 이슈의 분석모형(종속변수: 지역구 여당투표=1, N=456)

변수	모형5-1	모형5-2	모형5-3	모형5-4	모형5-5
새누리당선호	1.222*** (0.193)	1.299*** (0.201)	1.225*** (0.194)		
민주통합당선호	-0.295 (0.191)	-0.228 (0.196)	-0.294 (0.192)		
자유선진당선호	-0.314* (0.167)	-0.346* (0.178)	-0.305* (0.165)		
통합진보당선호	-0.494*** (0.163)	-0.489*** (0.169)	-0.500*** (0.162)		
기타정당선호	-0.124 (0.178)	-0.146 (0.185)	-0.127 (0.177)		
정당 정책만족도	-0.168 (0.169)	-0.087 (0.176)	-0.172 (0.168)		
정권만족도	-0.028 (0.184)	-0.005 (0.188)	-0.025 (0.184)		
정치적 이슈	0.068 (0.150)			0.101 (0.128)	
현정부평가		-0.293* (0.174)			-0.145 (0.145)
막말파문		0.607*** (0.191)			0.646*** (0.159)
민간인불법사찰		0.134 (0.197)			-0.017 (0.169)

한미FTA		-0.067			-0.060
		(0.174)			(0.152)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0.281*			-0.226*
		(0.159)			(0.137)
(로그)연령	0.029	0.024	0.018	0.766	0.634
	(0.564)	(0.576)	(0.564)	(0.509)	(0.522)
소득수준	0.083	0.112	0.079	0.148	0.192
	(0.146)	(0.150)	(0.145)	(0.126)	(0.129)
기독교	-0.503	-0.577	-0.501	-0.207	-0.324
	(0.377)	(0.390)	(0.377)	(0.330)	(0.343)
천주교	-0.977**	-1.104**	-0.973**	0.052	-0.114
	(0.496)	(0.534)	(0.494)	(0.374)	(0.400)
불교	0.497	0.514	0.505	0.667*	0.743*
	(0.480)	(0.489)	(0.480)	(0.401)	(0.414)
기타정당선호	-1.000	-1.020	-1.012	-0.601	-0.634
	(0.740)	(0.748)	(0.736)	(0.650)	(0.662)
회사원	0.107	0.117	0.124	0.197	0.135
	(0.336)	(0.343)	(0.334)	(0.296)	(0.303)
자영업	-0.491	-0.498	-0.484	-0.003	-0.017
	(0.462)	(0.473)	(0.461)	(0.390)	(0.400)
서비스업	-0.218	-0.329	-0.228	-0.244	-0.305
	(0.575)	(0.599)	(0.574)	(0.515)	(0.533)
공무원	-0.012	-0.258	0.005	-0.295	-0.487
	(0.622)	(0.642)	(0.619)	(0.542)	(0.559)
전문직	-0.450	-0.522	-0.460	-0.614	-0.772
	(0.653)	(0.658)	(0.654)	(0.611)	(0.621)
교육수준(대졸=1)	-0.221	-0.262	-0.218	-0.013	-0.031
	(0.299)	(0.306)	(0.299)	(0.260)	(0.267)
거주지(강북=1)	0.327	0.338	0.336	-0.076	-0.049
	(0.279)	(0.287)	(0.278)	(0.236)	(0.244)
상수	0.205	0.354	0.275	-0.826	-0.007
	(4.951)	(5.741)	(4.925)	(3.418)	(4.068)
Pseudo R2	0.197	0.225	0.196	0.027	-0.065
Log-Likelihood	-196.68	-189.66	-196.78	-238.32	-228.87
N	456	456	456	456	456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제 3 절 투표 행태: 비례대표 투표 정당

비례대표와 관련한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역구 투표 행태와 다소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와 비교하여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99% 신뢰수준에서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1단위 증가할 때 99% 신뢰수준에서 여당에 대한 투표 오즈(odds)는 73.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가 1단위 증가할 때 여당에 대한 투표 오즈(odds)는 31.3% 감소(신뢰수준 9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진당에 대한 선호는 1단위 증가할 때 여당 투표 오즈(odds)가 22.6% 감소(신뢰수준 90%)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는 1단위 증가할 때 95% 신뢰수준에서 투표 오즈(odds)는 2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는 달리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 유권자들의 정권 만족도가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6-4>와 <모형 6-5>는 95% 신뢰수준에서 정권만족도가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만족도의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때 여당에 투표하는 오즈(odds)가 38.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당의 정책만족도나 정치적 이슈는 <모형 6-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20〉 분석 모형(종속변수: 비례대표 여당투표=1, N=452)

	모형6-1	모형6-2	모형6-3	모형6-4	모형6-5
새누리당 선호도		0.628*** (0.147)	0.627*** (0.147)	0.554*** (0.153)	0.553*** (0.153)
민주통합당 선호도		-0.446*** (0.165)	-0.429*** (0.166)	-0.366** (0.171)	-0.375** (0.171)
자유선진당 선호도		-0.236* (0.141)	-0.210 (0.144)	-0.230 (0.145)	-0.256* (0.146)
통합진보당 선호도		-0.342** (0.139)	-0.314** (0.142)	-0.308** (0.143)	-0.291** (0.144)
기타정당 선호도		0.152 (0.147)	0.194 (0.153)	0.140 (0.156)	0.148 (0.157)
정당 정책만족도			-0.146 (0.139)	-0.247* (0.149)	-0.239 (0.151)
정권만족도				0.362** (0.168)	0.358** (0.168)
정치적 이슈					0.208 (0.137)
(로그)연령	0.600 (0.461)	0.131 (0.487)	0.132 (0.488)	0.115 (0.488)	0.148 (0.489)
소득수준	0.042 (0.117)	0.022 (0.125)	0.021 (0.125)	0.037 (0.127)	0.048 (0.127)
기독교	0.075 (0.296)	-0.043 (0.311)	-0.056 (0.312)	-0.044 (0.315)	-0.053 (0.317)
천주교	0.099 (0.355)	-0.414 (0.410)	-0.448 (0.412)	-0.496 (0.423)	-0.507 (0.427)
불교	0.350 (0.401)	0.307 (0.433)	0.272 (0.435)	0.346 (0.438)	0.341 (0.437)
기타	0.583 (0.479)	0.623 (0.507)	0.646 (0.510)	0.594 (0.512)	0.649 (0.515)
회사원	-0.137 (0.280)	-0.261 (0.299)	-0.279 (0.300)	-0.231 (0.301)	-0.275 (0.304)
자영업	0.073 (0.361)	-0.171 (0.391)	-0.163 (0.391)	-0.108 (0.395)	-0.138 (0.397)
서비스업	0.039 (0.452)	0.135 (0.474)	0.166 (0.474)	0.138 (0.472)	0.169 (0.473)
공무원	-0.323 (0.509)	-0.254 (0.538)	-0.255 (0.539)	-0.329 (0.551)	-0.377 (0.557)
전문직	-0.312 (0.527)	-0.118 (0.547)	-0.153 (0.550)	-0.088 (0.557)	-0.075 (0.558)
교육수준(대졸=1)	-0.120 (0.239)	-0.262 (0.253)	-0.247 (0.253)	-0.324 (0.258)	-0.330 (0.259)
거주지(강북=1)	-0.026 (0.222)	0.148 (0.239)	0.173 (0.241)	0.145 (0.243)	0.117 (0.244)
상수	-3.247* (1.694)	-0.909 (1.981)	-1.244 (2.012)	-0.974 (2.026)	-1.066 (2.028)
Pseudo R2	0.011	0.087	0.089	0.098	0.103
Log-Likelihood	-263.53	-243.20	-242.65	-240.24	-239.07
N	456	456	456	456	456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종속변수를 비례대표 여당 투표 여부로 하는 추가적인 분석 모형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만족도, 막말파문 등의 정치적 이슈가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7-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비례대표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에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여당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여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명박 정부 만족도의 표준편차 1 단위가 증가할 때 여당 투표의 오즈(odds)는 3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말파문과 같은 정치적 이슈 또한 비례대표로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막말 파문에 대한 관심이 1 단위 증가할 때 비례대표로 여당 지지여부에 대한 오즈(odds)는 38.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1〉 정치적 이슈의 분석모형(종속변수: 비례대표 여당투표=1, N=456)

변수	모형7-1	모형7-2	모형7-3	모형7-4	모형7-5
새누리당선호	0.553*** (0.153)	0.569*** (0.155)	0.554*** (0.153)		
민주통합당선호	-0.375** (0.171)	-0.345** (0.173)	-0.366** (0.171)		
자유선진당선호	-0.256* (0.146)	-0.242 (0.150)	-0.230 (0.145)		
통합진보당선호	-0.291** (0.144)	-0.282* (0.146)	-0.308** (0.143)		
기타정당선호	0.148 (0.157)	0.142 (0.159)	0.140 (0.156)		
정당 정책만족도	-0.239 (0.151)	-0.203 (0.154)	-0.247* (0.149)		
정권만족도	0.358** (0.168)	0.362** (0.171)	0.362** (0.168)		
정치적 이슈	0.208 (0.137)			0.176 (0.120)	
현정부평가		-0.054 (0.152)			-0.055 (0.134)
막말파문		0.327** (0.164)			0.410*** (0.146)

민간인불법사찰		0.173			0.093
		(0.172)			(0.156)
한미FTA		-0.051			-0.100
		(0.151)			(0.140)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0.023			-0.007
		(0.140)			(0.128)
(로그)연령	0.148	0.109	0.115	0.628	0.539
	(0.489)	(0.491)	(0.488)	(0.462)	(0.466)
소득수준	0.048	0.065	0.037	0.053	0.086
	(0.127)	(0.128)	(0.127)	(0.117)	(0.118)
기독교	-0.053	-0.057	-0.044	0.059	0.030
	(0.317)	(0.325)	(0.315)	(0.298)	(0.306)
천주교	-0.507	-0.505	-0.496	0.097	0.007
	(0.427)	(0.446)	(0.423)	(0.357)	(0.373)
불교	0.341	0.376	0.346	0.335	0.386
	(0.437)	(0.440)	(0.438)	(0.401)	(0.407)
기타정당선호	0.649	0.634	0.594	0.620	0.631
	(0.515)	(0.514)	(0.512)	(0.480)	(0.484)
회사원	-0.275	-0.293	-0.231	-0.183	-0.249
	(0.304)	(0.306)	(0.301)	(0.282)	(0.285)
자영업	-0.138	-0.133	-0.108	0.021	-0.012
	(0.397)	(0.400)	(0.395)	(0.364)	(0.368)
서비스업	0.169	0.134	0.138	0.061	0.038
	(0.473)	(0.479)	(0.472)	(0.454)	(0.459)
공무원	-0.377	-0.512	-0.329	-0.371	-0.510
	(0.557)	(0.569)	(0.551)	(0.511)	(0.521)
전문직	-0.075	-0.120	-0.088	-0.310	-0.420
	(0.558)	(0.558)	(0.557)	(0.527)	(0.531)
교육수준(대졸=1)	-0.330	-0.343	-0.324	-0.119	-0.152
	(0.259)	(0.262)	(0.258)	(0.240)	(0.243)
거주지(강북=1)	0.117	0.100	0.145	-0.041	-0.050
	(0.244)	(0.247)	(0.243)	(0.223)	(0.226)
상수	-1.066	-2.361	-0.974	-3.363**	-4.192**
	(2.028)	(2.227)	(2.026)	(1.697)	(1.895)
Pseudo R2	0.103	0.110	0.098	0.015	0.029
Log-Likelihood	-239.07	-237.13	-240.24	-262.43	-258.73
N	456	456	456	456	456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제 4 절 투표 행태: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 불일치

〈모형8-1〉부터 〈모형8-5〉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한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이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 통합진보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일수록 비일관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합을 형성하면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각 정당에 대한 정책만족도와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정책 만족도를 보수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와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불일치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형 8-5〉에서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의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이 불일치할 오즈(odds)는 99% 신뢰수준에서 58.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는 일관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8-5〉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에 대한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때 일관된 투표 행태가 나타날 오즈(odds)는 4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분석모형(종속변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 불일치 여부, N=453)

	모형8-1	모형8-2	모형8-3	모형8-4	모형8-5
새누리당 선호도		0.074	0.048	-0.055	-0.074
		(0.136)	(0.140)	(0.147)	(0.150)
민주통합당 선호도		-0.270*	-0.312**	-0.217	-0.173
		(0.154)	(0.157)	(0.163)	(0.167)
자유선진당 선호도		0.292*	0.202	0.174	0.241
		(0.150)	(0.156)	(0.158)	(0.162)
통합진보당 선호도		0.439***	0.339**	0.364**	0.303*
		(0.146)	(0.149)	(0.151)	(0.157)

기타정당 선호도		0.308**	0.138	0.058	0.037
		(0.153)	(0.163)	(0.167)	(0.173)
정당 정책만족도			0.599***	0.479***	0.476***
			(0.147)	(0.155)	(0.162)
정권만족도				0.378**	0.405**
				(0.157)	(0.165)
정치적 이슈					-0.625***
					(0.142)
(로그)연령	-0.192	0.105	0.058	0.046	-0.132
	(0.457)	(0.484)	(0.499)	(0.505)	(0.530)
소득수준	0.068	0.077	0.090	0.087	0.059
	(0.120)	(0.126)	(0.129)	(0.130)	(0.134)
기독교	-0.179	0.016	0.063	0.096	0.195
	(0.294)	(0.314)	(0.322)	(0.326)	(0.343)
천주교	-1.105***	-0.882**	-0.731**	-0.727**	-0.812**
	(0.331)	(0.350)	(0.362)	(0.365)	(0.383)
불교	-0.487	-0.228	-0.084	-0.013	0.035
	(0.394)	(0.420)	(0.435)	(0.439)	(0.447)
기타	0.914	1.026	0.931	0.862	0.679
	(0.652)	(0.678)	(0.678)	(0.682)	(0.680)
회사원	-0.510*	-0.400	-0.342	-0.257	-0.074
	(0.285)	(0.301)	(0.310)	(0.316)	(0.327)
자영업	-0.513	-0.328	-0.334	-0.236	0.004
	(0.375)	(0.397)	(0.407)	(0.411)	(0.434)
서비스업	-0.019	-0.029	-0.082	-0.107	-0.201
	(0.498)	(0.527)	(0.547)	(0.553)	(0.554)
공무원	-1.327***	-1.554***	-1.611***	-1.615***	-1.468***
	(0.465)	(0.479)	(0.491)	(0.487)	(0.501)
전문직	-0.457	-0.367	-0.173	-0.015	-0.047
	(0.504)	(0.538)	(0.563)	(0.583)	(0.596)
교육수준(대졸=1)	-0.113	-0.142	-0.195	-0.254	-0.278
	(0.244)	(0.258)	(0.264)	(0.268)	(0.280)
거주지(강북=1)	0.585***	0.395*	0.266	0.227	0.330
	(0.220)	(0.234)	(0.242)	(0.246)	(0.253)
상수	1.631	-1.899	-0.417	-0.090	0.537
	(1.671)	(1.959)	(2.058)	(2.082)	(2.194)
Pseudo R2	0.058	0.125	0.157	0.168	0.208
Log-Likelihood	-262.29	-243.53	-234.51	-231.59	-220.46
N	453	453	453	453	453

*p<0.1, **p<0.05, ***p<0.0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제 5 절 가설의 검증 결과

[가설 I] 정당 선호도에 관한 가설로 “정당 선호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대립 가설로 유권자는 선호도가 높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투표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며, 정당 선호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을 다르게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정당선호도에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투표 참여에 있어서는 특정 정당 선호도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지역구 후보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일치여부는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 통합진보당을 선호하는 유권자일수록 비일관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합하면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설 II] “정당 정책 만족도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대립 가설로 정책 만족도는 유권자의 여당 / 야당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야성향에 따라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보성향 정책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는 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보수성향 정책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는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는 반면 진보성향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정책 만족도를 보수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와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당 정책 만족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되었다.

[가설 Ⅲ] “이명박 정부 만족도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대립 가설로,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있어서도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지역구 후보의 정당과 비례대표의 정당이 일치하는지 투표 여부에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일치를 나타냈었다.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Ⅳ] “정치적 이슈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대립 가설로 정치적 관심도는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야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것이며, 여당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일치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선거 막판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은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돌출 변수로 떠오른 막말 파문은 여당에 대한 투표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는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관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서울특별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 중 하나인 ‘야권연대’에 대한 여·야 지지성향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시초를 제공하고 있는 이갑윤(2011)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에 의한 후보단일화’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투표 정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도 지역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서울특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정치적 이슈, 이명박 정부 만족도의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울특별시 유권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674부 중 549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투표 참여에 있어서 설문조사 대상자 중 82.2%가 투표를 했으며, 17.8%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투표를 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바빠서(가정, 업무 등)”가 37.8%(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32.8%(39명),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14.3%(17명),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8.4%(10명), “내가 안 찍어도 당선될 사람이어서”가 4.2%(5명), “투표할 시간이 없어서”가 1.7%(2명),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 후보가 없어서” 0.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여부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민

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있어서 특정 정당 선호도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선호할 때 투표 참여율이 증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합 하였음에도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 같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자유선진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높을 경우 유권자 스스로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역구 후보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선택에 있어서 먼저, 지역구 후보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당선호도와 막말 파문이었다. 야당이 승리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여대야소를 지켜냈다. 여기에는 민주통합당이 정권 심판론만 앞세우며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막판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은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구 후보 정당을 선택하는데 유권자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투표 하였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선호도는 여당에 대한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4대강 사업으로 전체 549명의 응답자 중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311명(56.6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명(0.91%)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복지 정책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28명(23.32%), 매우 만족함 2.19%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외교 정책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복지 정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만족하지 않음 혹은 매

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각각 31.88%, 19.31%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 정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는 반면 진보성향 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표준편차가 1단위 증가할 때 95% 신뢰수준에서 여당에 대한투표의 오즈는 6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막판 돌출 변수로 떠오른 막말 파문은 여당에 대한 투표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는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지역구와 비교하여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국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단순다수 소선거구제(후보자 투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정당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1인 2표 병립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 한 표는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행사한다.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당 선호도,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회고적인 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하고 제 1당이 되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의석수 48석 중 16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와는 다소 다른 양태를 나타낸다.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후보와 비교하여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는 달리 비례대표에 있어서 정당 정책 만족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있어서도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지역구 후보의 정당과 비례대표의 정당이 일치하는지와 관련된 투표 선택에 있어서 정치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지만, 정당 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 통합진보당을 선호하는 유권자일수록 비 일관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이 연합하면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와 이명박 정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구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자의 의정 경험, 4.11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서의 유권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지지하지만 지역구 후보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의해 불일치한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당 정책 만족도를 보수적인 정당에 대한 정책 만족도와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당 정책 만족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선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해 유권자들의 일관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정책만족도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있어서도 여당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지역구 후보의 정당과 비례대표의 정당 일치 여부에서 정치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으며, 정당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일치하였다.

끝으로,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서 정당선호도와 지역 투표에는 유권자 개인의 합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국가운영 평가가 회고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이슈 등이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투표 행위가 정책을 변화 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귀속감이나 심리적인 정서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 유권자들의 인식을 정확히 알려주고,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투표 참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일치여부)에 정당 선호도, 정당 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 만족도, 정치적 이슈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유권자 투표 행태와는 차별적으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일관되게 선택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지만, 실제 투표 시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며,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나 혹은 야당이나에 따라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인 2표제에 의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소속 정당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주의라는 변수는 여전히 작용하여 정당 선호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 정부를 평가하는 회고적 평가와 막말 파문 같은 이슈도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함으로써 양당체제의 구조를 확립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새누리당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제18대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무려 25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제19대 선거에서는 겨우 3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당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이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후보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요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 그들의 능력이나 활동에 관계없이 주요 정당 후보들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지역주의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남 혹은 호남 지역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의 선거에 있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정도는 일정부분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당 후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선거에 임해야 한다.

넷째, 야당 후보자의 경우는 유권자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 발언의 수위와 수준을 조절하여야 한다. 야당이기엔 주장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공격성 발언은 오히려 스스로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해 볼 때,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후보자가 난립되는 현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영국식 양당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소속 정당의 선호도,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 그리고 후보자들의 발언과 행동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의를 배제하고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설계로 인해 합리적인 투표와 비합리적인 투표 행태 요인의 차이점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가 아닌 어떠한 요인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유권자의 투표 행태 변화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해 치러진 대선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갑윤(2011)의 연구와는 달리 19대 국회의원 선거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간의 비교와 역대 국회의원 선거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거의 특성, 선거 시기별 정치적 이슈,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유형한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 특성의 변화 과정을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원택. (200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 :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중첩」. 진영재(편). 『한국의 선거Ⅳ』, 서울 : 한국과학데이터센터.
- 김광웅 외. (1987). 『한국선거론』, 서울 : 다산.
- 김광웅, 이갑윤. (1996). 『정당 선거 여론』. 서울 : 한울.
- 김도중, 김형준.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pp.105-127.
- 김만흠. (1991).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5).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4(2), pp.215-237.
- 김재전. (2008). 「한국의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재. (1994). 「유권자 행태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유권자의 정치몰입 수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준. (2006). 「17대 총선과 세대: 정당지지 분석을 중심으로」. 어수영(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 오름
- 마인섭. (2003). 「한국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한국정당학회보』, 2(1), pp.31-69.
- 문용직. (199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7, pp.161-190.
- 박상훈. (2000).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이석. (2005).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 후보 인지능력과 투표 참여 의사 : 제14대 총선 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3), pp.153-174.
- _____. (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 나남.
- 서상국. (200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2009년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학. (2003). 「정치마케팅 PR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병만. (1993). 「제14대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정당 관여와 투표 행태」. 『한국정치학회보』, 26(3), pp.175-193.
- _____. 김인철. (1994).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 행태: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2), pp.99-120.
- 안병만. (2005). 『한국의 선거와 한국인의 정치행태』. 서울 : 도서출판 인간사랑.
- 윤종빈. (2002).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 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4), pp.177-193.
- 윤천주. (1961). 「읍민의 투표 행태」. 『아세아 연구』, 4(1), pp.1-52.
- 이동윤. (2009). 「사회적 균열과 투표 행태, 그리고 정당체제: 정치사회학적 관점」. 『투표 행태의 이해』, 서울 : 한울.
- 이갑윤. (1989).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 행태와 민주화: 토론 I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pp.25-40.
- _____. 이현우. (2000).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pp.149-170.
- _____. 이현우. (2002). 「후보자 요인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 14대~16대 총

- 선을 대상으로」. 진영재(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 한국과 학데이터센터.
- _____.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1), pp.137-166.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 이남영. (1992). 「한국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요인: 85년 88년 국회의원선거결과의 비교분석」. 『의정연구』, 54(9), pp.1-23.
- _____. (1993). 「투표 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이상율. (1990). 『정치마케팅 - 선거를 위한 마케팅 전략』. 서울: 이성과 현실.
- 이상휘. (2006). 「투표의 쏠림현상에 대하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1(3), pp.357-386.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제15대 대통령선거 분석과 정치개혁」.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
- 이현출. (2001). 「무당파층의 투표 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4), pp.137-160.
- 장승진. (2012). 「제 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5), pp.99-120.
- 전재섭. (2009).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당선호,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민. (1993). 「한국사회의 세대문화와 선거」.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 나남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재목. (2005). 「세대와 정치심리요인 및 투표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제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중빈. (1993).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 행태」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 푸른길.

- 진영재·엄기홍. (2002). 「낙천·낙선운동의 선거적 결과: 선거참여율, 득표, 당락 그리고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진영재(편), 『한국의 선거Ⅱ』, 서울: 한국과학데이터센터.
- 최준영. (2009). 「선거이슈와 투표 행태」. 『투표 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 황 근. (1993). 「유권자의 정치적 도식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아란. (1995). 「한국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투표 참여 및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122.
- _____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4), pp.285-298.
- _____ (1998).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 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pp.163-180.
- _____ (1999). 「6.4 기초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조중빈(편). 『한국의 선거Ⅲ』, 서울: 푸른길.

2. 국외 문헌

- Almond, G. 1960. A Functional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 A. Almond & J. S. Coleman (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C. J. 2006. The Interaction of Structures and Voter, In Dalton, R. J. & Klingemann, H. D.(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 Stokes, D. E.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_____, Gurin, G.,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and Company.
- Carmines, E. G., & Stimson, J. A. 1980.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1).
- Converse, P. E. 1960. *The Concert of A Normal Vote*. New York: Wiley.
- _____.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 Druckman, J. N. 2004.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Com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Ir)relevance of Framing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v. 98(4): 671-686.
- Duverger, M.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 Engel J. F., & Blackwell, R. d. 1982. *Consumer Behavior*, New York: The Dryden Press
- Evan, A. J. 2004. *Voter & voting: An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
- Ferrell, D. M. 1997. *Comparing Election systems*. New York: Prentice Hall.

- Fiorina, M.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rrop, M., & William, L. M. 1987. *Election And Voters: A Comparative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 Hess, R. D., & Torney, J. V. 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 Key. Jr.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zasfeld, Paul, Bernard, Berelson, & Gauder, H. 1948.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 S., & Rice, T. 1992. *Forecasting Election*, Washington D. C. : Congressional Quarterly.
- McCarthy, J. D., & Mayer, N. Zald 1997. Resources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6).
- Maisel, L. Sandy. 2002. *Parties and Elections in America: The Electoral Process*, 3rd ed. Boulder a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Inc.
- Manis, M. 1977. Cognitive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 Miller, A. H., Wattenberg, M. P., & Malanchuk, O. 198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Candidate Assessments. in Sander, K. R, Kaid, L. L. & Nimmo, D.(ed.).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207-241.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Newman, B. I., & Sheth, J. N., 1985.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2).
- Norris, Pippa 2004. *Electoral Engineering: Voting Rules and Political Behavior*.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erson, Thomas 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 Pomper, G. M. 1972. *The performance of America Government: Checks and Misuses*. New York: Free Press.
- Rabinowitz, George., & Macdonald, tuart Elaine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
- Raid, D. M. 1988. *Placting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Organization, Electoral Setting, and Government Activit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psle, Kenneth. A., & Bonchek, Mark S. 1997. *Analyzing Politics: Rationality Behavior And Institu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herif, M., & Hovland, C. I. 1961. *Social Judge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3.기타 자료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http://www.ksdc.re.kr>

<http://joongang.joinsmsn.com>

<http://www.hrc.co.kr>

<http://www.chosun.com>

<http://www.sbs.co.kr>

〈부록〉 설문지

귀하의 편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분의 인적사항은 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종합적인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조사에 응하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설문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과정을 적시한 정치문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오며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 년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 이창원

연구자 : 최미경

연락처: meek1144@hanmail.net / HP. 010-9116-8041

I. 아래의 각 설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했습니까?

① 투표했다		② 투표하지 않았다	
--------	--	------------	--

1-2. 만약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는? (②번 응답자만 기입)

①	우리 지역 출신 후보가 없어서	
②	내가 안 찍어도 당선 될 사람이니까	
③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④	바빠서 (가정, 업무 등)	
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⑥	나는 정치자체에 무관심하다.	
⑦	투표할 시간이 없어서	

2. 다음은 4. 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표한 정당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투표한 정당	새누 리당	민주 통합 당	자유 선진 당	통합 진보 당	창조 한국 당	국민 생각	기타 정당
①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②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II. 정당 선호도

다음은 정당 선호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귀하의 정당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아래 정당에 대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정당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 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자유선진당					
④	통합진보당					
⑤	기타 정당					

Ⅲ. 정당 정책 만족도

다음은 정당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만족도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향을 미쳤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	----------------	--

2.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의 정책방향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문항	정당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자유선진당					
④	통합진보당					
⑤	기타 정당					

3. 귀하께서는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공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경제 공약					
②	복지 공약					
③	외교 공약					
④	교육 공약					
⑤	대북 공약					

IV. 이명박정부 만족도

이명박정부 평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향을 미쳤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

2. 귀하께서는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 다음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정책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4대강 사업					
②	복지 정책					
③	부동산 정책					
④	외교 정책					
⑤	교육 정책					
⑥	대북 정책					

V. 정치적 이슈

다음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투표 참여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이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현 정부 평가					
②	막말 파문					
③	민간인 불법사찰					
④	한미 FTA					
⑤	총선 여론조사					

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4.11 국회의원선거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 정부 평가		② 정치적 관심도	
-----------	--	-----------	--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oting Behavior in Korea

– The Case of the 19th Assembly Election in Seoul –

Choi, Mee-kyung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voting behavior for the case of the 19th Assembly Election in Seoul. The survey on Seoul residents was conducted to test the causal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It was also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alliance’ or ‘the pan-opposition camp’ which has become widely spread in the modern politics of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electors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voting when their preferred party gains more powerful support. The main reason they site for being

unable to participate is being too busy (37.8%). The next most common reason was that they did not like any of the candidates (32.8%). The third most common reason was that they thought nothing will change even if they vote (14.3%). A voter participation survey about the candidate from an alliance unified as an opposing camp showed that the voter participation on behalf of the candidate from the more powerful Democratic United Party increased while voters supporting for the Progressive United Party (the less powerful faction) decreased. Therefore, Unifying as an opposing camp through this alliance have no significance influence in electors participation in voting.

Second, the influence of voter's preference for parties is relatively more clear in voting for district candidates. District candidates depend much more on what party they join. Voters who have more preference to the Saenuri Party, the ruling party,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government party. On the other hand, the preference to the opposition parties such as the Democratic United Party, the Progressive United Party, and the Liberty Forward Party negatively related to voting for the ruling party. Also,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political issue of vulgar language of Kim, Yong Min, a liberal blogger and an opposition candidate disenchanted a number of potential voters that would have rallied to its cause.

The result for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even more clear cut. Voters' preference to the Saenuri Party, the ruling par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voting for the government party, while they are more likely to vote for opposition party as their levels of preference to the Democratic United Party, the Progressive United Party, and Liberty Forward Party increase. Political satisfaction also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voters' behavior. The

satisfaction of the Lee administ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voting for the government party.

Third, political issu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istent voting behavior for district candidat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ty preference, satisfaction of the party policy, and the satisfaction of the Lee administration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preference for the Progressive United Party increases, electors are more likely to vote for different parties. Voters who support for the Progressive United Party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Democratic United Party after the coalition between the two opposition parties. Both satisfaction for party policy and that for the Lee administration are high, electors voting behavior are less likely to be consistent in voting for district candidat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Key words] Voting Behavior, Party Preference, Satisfaction for Policy, Satisfaction for Lee Myung-bak Government, Political Issues